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09-14



10th



2023년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23년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CONTENTS

01 마을만들기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	008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석화마을	014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동해마을	020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숲속마을	026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2리 마을	032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백석탄골부리마을	0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마을	044

02 농촌만들기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	052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05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 케어팜	06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07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농촌문화터미널	076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농촌 공공임대주택	082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하모니힐링스쿨	088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094



03 우수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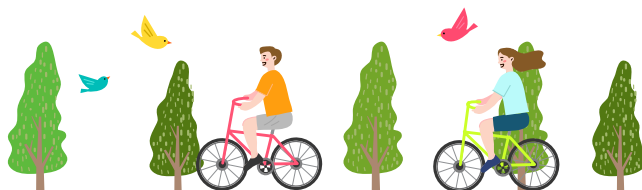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강성애	102
	전라남도 영암군 김창오	106
	전라북도 진안군 심효진	110
	충청남도 청양군 문미정	114
	전라북도 부안군 박후진	118
	경상북도 상주시 김정하	122

04 우수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용지현	128
	충청남도 아산시 오민환	132
	경상남도 거창군 장병문	136



행복한 농촌, 행복한 마을의 행복 기운이 널리 퍼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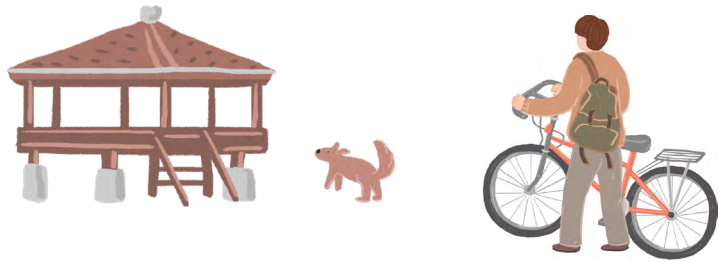
평가위원장 김 정 연(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2014년에 시작한 본 콘테스트는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모여 진행된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마을의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에 저마다의 마을발전과 성과를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뽐내고 공유한다. 본 콘테스트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에 매년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농촌마을 활성화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상생적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주민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 수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 간 화합과 마을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주민의 결속은 마을 발전 및 마을 홍보를 활성화시키고 도농교류를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는 본 콘테스트가 갖는 의미를 한층 살릴 수 있도록 두 가지 큰 변화를 주었다.

첫째, 마을만들기 분야와 농촌만들기 분야가 분리되어 두 장소에서 나누어 진행되었던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한 장소에서 통합 진행하였다. 모든 팀이 함께하여 발표장 안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다른 팀들의 발표 및 퍼포먼스를 객석에서 지켜보며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다양한 혁신사례들을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본 콘테스트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힘쓰는 주민들의 노고가 값진 결과로 이어지도록 효과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고 홍보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왔다. 이에 올해는 우수활동가 분야를 신설하였다. 마을만들기와 농촌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을 목표로 오랜 기간 헌신해온 우수활동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시상하였다. 활동가들의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자료집 등의 기록물을 만들어 그들의 성과를 널리 소개함으로써 좋은 영향력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발굴된 우수활동가와 우수공무원은 지역의 인적자원으로서 지속적인 상생적 거버넌스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올해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남 순천시 문성마을은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마을의 대표작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이로부터 창출된 소득을 마을 경관 조성과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마을연금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재분배하였다. 행복한 사회적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가 지향하는 대표적인 상생적 지역발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를 이루어낸 우수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멀리 보고, 천천히 오랫동안 함께 가는 길’을 지향하였다. 소규모 사업들을 마중물 삼아 조급해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 관계인구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포용적인 농촌공동체로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누구든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농촌, 활기찬 농촌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사례집

01 마을만들기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이웃들 간의 소통과 상호지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	08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석화마을	14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동해마을	20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숲속마을	26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2리 마을	32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백석탄골부리마을	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마을	44

마을만들기
금상





‘자연과 함께 사람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

아미산 자락에 위치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문성마을은
농촌융복합산업과 마을기업을 기반으로
760년의 마을 역사에 더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주민주도로 새로움에 적극 도전하며 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 ●
문성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문성길 34
인구수(가구)	62명(32가구)
마을자원	서당공, 옷된장, 옷순고추장, 마을축제, 마을기업 서당골, 서로돌봄사업, 인이지 농경단, 자연담화 공동체 등



문성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전경(깨끗한 농촌마을과 계단식 논밭)

문성마을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마을 쇠퇴, 농업의 가치 하락 등으로 희망을 잃고 의타적으로 유지되는 마을이었으나 주민들 스스로 마음을 새로이 하여 마을발전 3단계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9년 수립한 계획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여 2025년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 실천의 과정은 마을과 주민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면적의 92%가 산과 밭으로 이루어진 문성마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옷나무 소득숲을 조성하고, 서당마을 대표 발작물인 서당콩과 융합하여 옷된장·옷순고추장을 개발하였습니다. 서당콩은 마을 소득을 주도하고 있는 문성마을의 대표적인 소득원천으로서 서당콩을 이용하여 2018년 특허 받은 옷된장 등 농특산물 생산·가공·판매와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다양성 창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예 주민제·귀농인의 집·농산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실시한 결과 2009년 24명에 불과했던 마을 주민이 2023년 62명으로 늘어났고, 마을 소득 또한 2011년 평균 650만원에서 현재 2023년 평균 3,8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00명의 주민이 월 소득(1일 2시간 주5일) 100만원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자는 '100x100x100 프로젝트'는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귀농·귀촌인 그리고 도시민이 참여한 다양한 공동체 조직과 사회적경제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문성마을은 소득의 대부분을 농촌 경관 형성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연금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주도의 배려·동행·창조·전진의 정신으로 마을을 가꾸고자 합니다.



▲ 마을기업 서당골



▲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조리교실



▲ 귀농인들과 포레스트 가든 만들기

마을발전 중장기 계획과 다양성 촉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4개의 상위공동체와 9개의 하위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 규범에 따라 각각의 조직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서당골은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전 주민 마을연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이지 농경단은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을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연담화 공동체는 귀농인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농촌관광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며 농촌마을의 새로운 문화복지사업을 창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농인 농산업 창업 지원(자연담화 공동체)



▲ 마을연금 지급

760년의 마을 역사에 새로운 100년을 더하다
자연과 함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문성마을

행복마을
NEWS

**농업을 농산업으로 전환해 농업 활성화
지리적 특성 살려 윗나무 소득 숲 조성
개발 상품 특허 등록, 소득원천으로
건강한 100세 위한 프로젝트 주최**

문성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마을사업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주민주도로 마을발전 3단계 5개

년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

정부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소득공동체 마을기업 서당골은 농가 92%가 참여하고, 농가 별로 650만원을 출자하여 지속적인 상품 개발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은 농

촌융복합산업과 우수마을기업 인증을 받는 등의 형태로 인정받으며 마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문성마을은 앞으로 배움과 나눔의 문화·복지 사업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평생직장의 꿈을 마을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서당콩 두부만들기 체험프로그램(마을기업 서당골)

“
마을,
마을이 되다
”

소득 원천 창출과 주민의 평생직장

마을주민 92%가 참여하고 참여 농가별 650만원을 출자한 소득공동체 마을기업 서당골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며 농촌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2021년 우수마을기업 인증을 받았고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및 꿈길진로체험처로 지정되었습니다.



▲ 마을 생산 제품



▲ 주민 재능 나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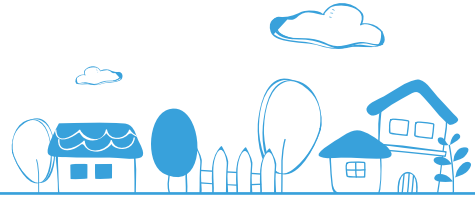


▲ 행복 향기 세상 속으로(마을축제)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과 창의적인 마을 정책

정부지원사업의 활용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뚝방 만들기’라는 별칭으로 사업을 계획 및 시행하였습니다. 뚝방은 웅덩이의 전라, 충청도 방언으로 물이 차면 필요시에 나눠 쓰는 뚝방의 기능을 차용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을 이와 같이 공유의 기반으로 인식하여 주민의 쉼터·일터·놀이터가 되는 사회적경제공동체의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과 연계하여 소비자 참여형 농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문성마을은 농촌경관을 유지하여 깨끗한 자연과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2015년부터 주민주도의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고 채워서 나누자’라는 농촌마을 배움나눔사업 등으로 마을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자 행복향기를 세상 속으로 전개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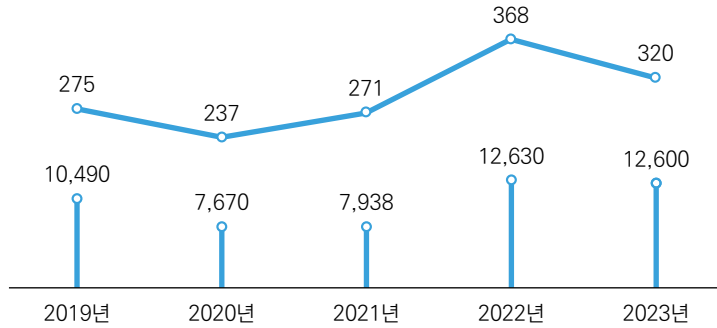
체험소득 및 방문객



매출액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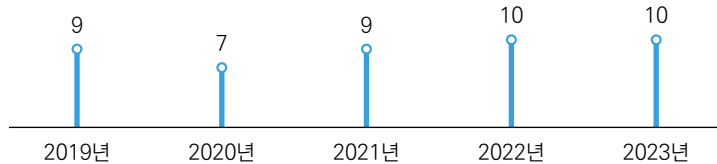
방문객
(명)



일자리 창출



정규직
누적고용인원
(명)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1.03 ~ 2025.12

문성마을 발전계획

사업비 386백만원/15년
주관기관 문성마을
- 경관·주거 환경 개선
- 자원의 소득화
- 생활 속의 문화·복지

2014.12 ~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사업비 35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공동체 소득 사업
- 자원의 소득화 사업

2016.01 ~ 2025.12

100×100×100 프로젝트

사업비 30백만원/년
주관기관 문성마을
- 다양한 사람들이 안정된
소득으로 100세 시대 향유

2016.06 ~ 2021.12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250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
마을 주민 92% 참여

2019.03 ~ 2023.12

농촌마을 자율·종합개발사업

사업비 1,55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순천시
- 마을 환경 개선 및
주민 복지 관련 사업

2021.01 ~

최상의 복지 평생직장 만들기

사업비 84백만원/년
주관기관 문성마을
- 스스로 만든 직장에서 내려놓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직장(마을기업) 고용

2022.01 ~

마을연금사업

사업비 20백만원/년
주관기관 문성마을
- 취약계층 연금 지급

마을만들기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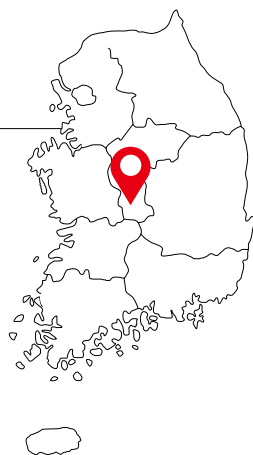


잘 먹고 서로 챙기며 즐겁게 함께하는 옥천군 동이면 석화마을

마을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충북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석화마을은 주민주도의 다양한 마을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복지를 실천하고, 공동체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 ●
석화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5길 14-5
인구수(가구)	217명(131가구)
마을자원	시설하우스 포도, 찜질방, 약물내기 공원, 오다가다 쉼터, 돌봄 도시락, 공동급식, 공동텃밭, 마을축제 등



석화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오다가다 쉼터 전경

석화마을은 풍천임씨 집성촌으로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마을 대표 특산물인 옥천군 포도의 시배지이며 1980년대 시설하우스 포도 재배법을 처음 도입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 4호선 확포장 공사와 동이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촌 산업화를 이끈 옥천군 새마을운동의 대표 마을입니다.

2000년대 들어 FTA 대응 포도 폐업지원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마을에 공장 및 창고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농촌다움은 물론 마을공동체 약화를 초래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짚질방 운영, 마을대청소 및 정원 가꾸기 등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마을기금 등을 활용한 짚질방은 주민 건강과 주민 간의 소통을 이루어내며 20년째 쉬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도

4호선 확포장으로 단절되어 있던 두 개의 자연마을, 음짓말과 양짓말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마을을 잇는 굴다리와 세산천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공동 우물터를 약물내기 공원으로 새 단장하여 주민 건강을 챙기는 쉼터이자 주민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마을정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관개선활동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석화마을은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마을복지거점공간인 '오다가다 쉼터'를 조성하여 마을 사랑방 및 공동부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을 내 돌봄도시락과 공동급식을 추진하여 연 3,800명의 주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약물내기 공원



▲ 짚질방



▲ 공동텃밭 경작

확고한 마을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

코로나19 이후 석화마을 주민들은 서로 돌보는 마음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여 2022년 '잘 먹고 서로 챙기며 즐겁게 함께하는 행복마을'로 마을비전을 정비하였습니다. 난개발로 얼룩진 마을을 정원 같은 마을로 복원하고, 공동 안 마을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을 우선하여 챙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민들은 향후 마을 어르신들이 외지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 마을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장기 발전계획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 어르신께 직접 만든 우리밀 빵 제공



▲ 어버이날 행사

서로 챙기며 즐겁게 잘 먹고 잘 사는 석화마을

행복마을 NEWS

**돌봄도시락, 공동급식 마을복지 실현
유휴시설 활용한 오가다가 쉽터 조성
신품종 포도로 생산기반 회복,
30여 농가가 재배**

육천군 포도 시배지이자 시설 하우스 포도 재배법이 처음 시도된 석화마을은 농공단지 조성 과 국도 확장, 농업생산 위축

로 마을 공동체 약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주민들은 서로 돌보고 챙기는 일상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
이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식사를 챙기

며 안부를 묻는 프로그램은 전체 주민들의 공동급식으로 확대되었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요한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마을 공동텃밭을 가꾸고 있다. 석화마을은 주민 스스로 마을과 주민을 살리는 마을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 공동급식

“
행복한 교류를
이루어가는 마을
”



▲ 공동급식 부녀회



▲ 요리교실



▲ 돌봄도시락 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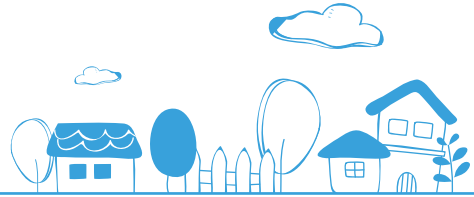
주민참여로 만들어가는 마을복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민 간에 서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감한 석화마을은 마을회의를 통해 돌봄도시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급식’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원이 주축이 되어 공동체분과를 구성하여 혼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두 번 안부를 묻고 도움을 드리며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동급식 인원이 늘면서 부족한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공동텃밭을 가꾸고 있으며 주민들은 운영기금을 보태어서 공동급식 예산을 크게 줄였습니다. 향후 제빵사, 영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민이 스스로 마을복지를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주도의 공동 활동 실천

마을에 조성된 오다가다 쉼터·약물내기 공원·굴다리·마을 안 꽃길·마을 표지판·정자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기둥아리인 아살라토·텃드럼과 소고춤·풍물·접시꽃체조 등의 마을 문화 활동, 출향인과 함께하는 마을축제·어버이날 행사 등 마을 공동활동을 주민참여로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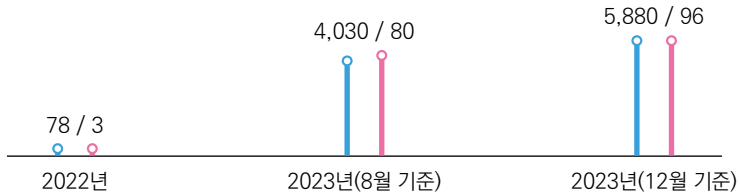
마을 문화복지, 공동체 주요 활동

활동명	기간	활동내용	참여자	구분
노인대학	2018	마을 어르신 대상 장기교육	40명	문화복지
선진지 견학	2019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황금빛마을	36명	역량강화
	2022	홍성 공동급식, 영광 노인의료, 여주 농촌유학	26명	역량강화
마을 요리교실	2022	한식 요리교실 및 실습	121명	역량강화
공동텃밭 재배	2023	마을공동재산을 활용한 공동텃밭 재배&농작물 공동급식 활용	15명	공동체
마을노래자랑	2023	주민 대상 마을행사	70여명	공동체
정기마을행사	계속	대보름, 어버이날 등	80여명	공동체

공동급식 활동



공동급식
대상인원
(명/회수)



마을돌봄도시락 대상



마을돌봄도시락
대상인원
(명)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7 ~ 2018

충북 행복마을사업

사업비 33백만원
주관기관 충청북도
- 꽃길, 벽화, 쓰레기
분리수거장 조성 등

2018 ~ 2021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비 50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오다다다 쉼터, 악물내기
공원, 역량강화 등

2022

마을책 만들기

사업비 5백만원
주관기관 옥천군
- 마을 역사,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책 발간

2023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사업비 20백만원
주관기관 옥천군
- 공동급식, 빵만들기,
마을축제 등

마을만들기
동상





위풍당당 풍요롭게 자립하는 해남군 북평면 동해마을

마을의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소득을 올리는 동해마을은
돌샘의 정기를 이어받아 위풍당당하게 자립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한 행사를 통해 마을의 역사를 잇고
귀농·귀촌인과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동해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동해길 97
인구수(가구)	107명(56가구)
마을자원	해남김치, 제철 농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전통 혼례·장례, 너른마당 고사, 돌샘, 저수지, 물놀이 체험장 등



동해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전경

돌샘과 저수지에서 얻은 청정수로 배추를 키우고 맛깔스런 김치를 담그는 동해마을은 공동생산·공동판매 하는 해남김치와 더불어 감·밤호박·고구마 등의 제철 농산물과 두부·된장·연잎밥·돼지떡바 등의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마을사업을 6차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동해마을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 자치조직을 결성하고 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정보화마을 공모에 선정되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동해마을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을 빈집을 활용한 '민관합동 농촌빈집재생 프로젝트' 전국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을호텔 조성 계획

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내 빈집 20호의 리모델링은 동해마을 자립 기반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전통 혼례·장례와 너른마당 고사 등의 무형 자원과 더불어 전통을 계승한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동해마을은 올해 해남미남매남축제에 향토 식재료와 향토음식 원형 보전가능성 등을 평가한 특산물 특별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전통을 계승하여 미래를 도모하고, 자립하는 동해마을의 정신은 매년 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마을은 다년간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마을기금 적립 및 마을연금 지급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문화복지활동 및 각종 마을축제·마을관광·어버이날 행사 등에 사용되어 마을주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 마을울력을 통한 돌샘가꾸기



▲ 김치판매프랜즈 개발



▲ 다함께 정비하는 물놀이 체험장

향토자원 활용과 마을 자원 재생의 순환 모델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동해마을은 마을자원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소득모델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농촌체험휴양마을·정보화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소득원으로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된 물놀이 체험장과 해남만의 차별화된 맛과 맛을 담은 해남미남축제속 김치부스 등이 있습니다. 김치체험을 진행하고 김치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HAPP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지역축제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마을사업 소득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 해남미남축제 김치부스 운영



▲ 어르신 모심 행사(주민 문화복지 활동 지원)

청정 토양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키운 동해마을의 경쟁력, 빛을 보다

행복마을 NEWS

HAPPC 자립화 시설 인증 받아 창의적인 농산물 가공품 개발 북평면 내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사업 꾸준히

아름다운 마을경관과 청정자원을 자랑하는 동해마을은 2004년부터 각종 농촌마을 공모사업에 도전하며 마을 경쟁력을 키

워왔다. 큰 틀에서는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자원을 재생하는 순환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

대표 상품인 해남김치 외에도 여러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한국 먹거리 브랜드로서 세계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동해마을영농조합법인인 협업적

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공동생산·출하·가공 등을 이루며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마을사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 마을공동김장행사

“
주변 마을에도 퍼지는
동해마을 주민들의 웃음꽃

”



▲ 문화복지 난타교실



▲ 가족과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체험



▲ 너른마당 고사(마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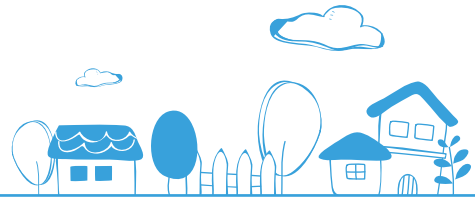
공동의 꿈이 되는 마을 경제 창조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축제·관광·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마을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높아졌습니다. 마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연금 등의 형태로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하여 북평면 내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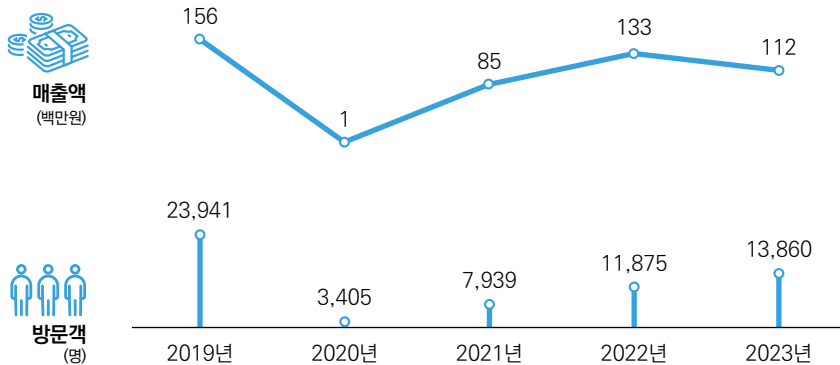
전통 계승 행사를 통한 소통교류 거점 마을 조성

500년 가까이 이어오다가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북평옹졸다리기 축제는 2009년 재현된 후 지금까지 매년 5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로 마을의 청장년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매년 12월에는 마당너른집 김장축제가 20일간 진행됩니다. 두 축제 모두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동해리 대표 잔치로 마을주민 협력은 물론 체험객들과 주민이 어우러져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함께 즐깁니다. 마을주민들은 의기투합하여 자체적으로 행사 음식을 더하고, 퍼포먼스도 합니다. 도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인들이 마을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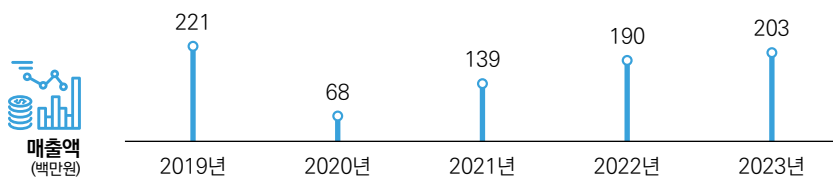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체험소득 및 방문객



총 소득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8.09 ~ 2019.03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사업비 40백만원
주관기관 해남군
- HAPPC 인증 등

2019.09 ~ 2020.12.30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비 134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물놀이 체험장 리모델링
-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마을만들기
동상



너와 나, 우리가 만드는 즐거움으로 행복한 밀양시 청도면 숲속마을

밀양의 북서쪽에 자리 잡아 예로부터 맑고 조용한 마을로 알려진
밀양숲속마을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를
귀농·귀촌인의 유입 기회로 삼으며 선주민과 후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마을사업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 ●
숲속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청도로 105-11
인구수(가구)	113명(68가구)
마을자원	당숲, 얼굴없는 불상, 청도어울림센터, 보물312호 소태리 5층 석탑, 숲속음악회, 박익 선생 벽화묘, 물놀이장 등



숲속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기업

2001년 제2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당숲이 있는 밀양숲속마을은 농촌마을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여 떠나는 마을에서 찾아오는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고령화와 생산량 저하에 따른 소득감소 위기를 가공상품 생산을 통하여 극복하고 있는 밀양숲속마을은 마을발전사업에 선주민은 물론 다양한 지식·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주민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마을기업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이루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수익금을 다시 마을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주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공동체 활동과 여러 문화 환원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행사로는 숲속음악회가 있습니다. 10회째 이어져오고 있는 본 행

사는 당숲 공원에서 진행되며 300~350년 된 느티나무와 팽나무, 회화나무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당숲의 경관과 음악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다양한 재료로 만든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물312호로 지정되어 있는 소태리 5층 석탑과 얼굴 없는 불상, 박익 선생 벽화묘 등의 역사적 유물도 있어 문화와 역사가 함께 흐르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주민 소득 증대라는 과거가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밀양숲속마을은 오늘도 힘차게 미래를 도모합니다.



▲ 숲속음악회



▲ 연극동아리



▲ 선진지 견학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을 전략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그에 뒤따르는 생산량 및 소득 감소 등 농촌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를 밀양숲속마을도 겪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나 남다른 스토리가 없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밀양숲속마을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쇄신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마을사업을 운영해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구·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제품개발활동



▲ 마을기업 홍보행사

난관을 돌파구로 만든 청도면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스토리를 만들다

행복마을 NEWS

가공품 생산으로 마을 수익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 제도 마련

아름다운 당숲이 있는 밀양숲속 마을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생산량 및 소득감소로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청도면 주민들은 스스로 시대 변

화에 대처하기 위해 나섰다.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연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마을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인과 소통하고 마을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나아가 마을 상품을 함께 개발

하여 마을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이 고취된 주민들은 나날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있다.



▲ 물놀이장

“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끝없이 향상되는 마을

”



▲ 마을학교



▲ 김장행사



▲ 주민참여 마을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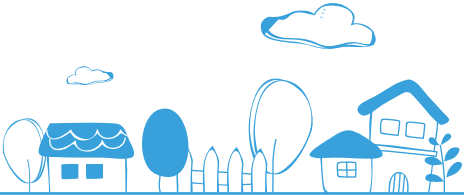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사업 운영

지속가능한 마을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추진한 결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특히 여름철 물놀이장이 매년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농촌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농촌인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마을기업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하여 운영하는 마을사업은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마을과 주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으며 마을이 커갈수록 수익도 증대되어 주민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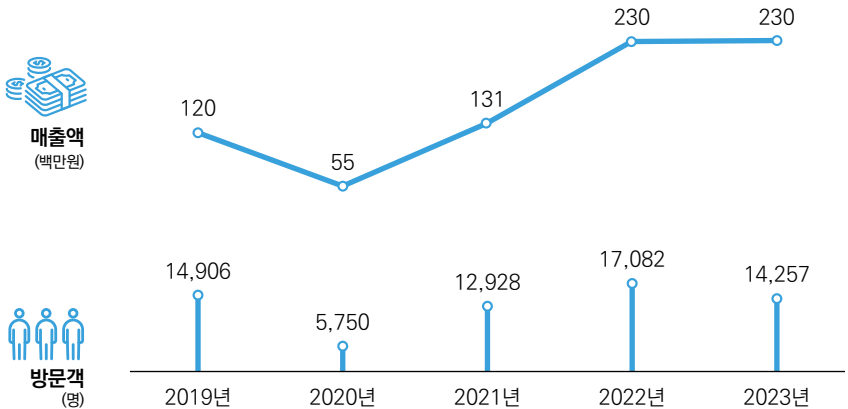
성과를 더 많은 주민들에게 나누기

함께 하고 싶어도 몸이 성치 못하여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밀양숲속마을은 너와 나, 우리가 만드는 즐거움으로 함께 행복한 마을을 지향하기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김장행사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낡고 노후화된 마을 내 시설을 정비하여 마을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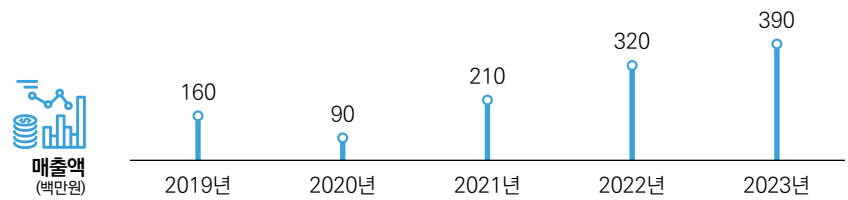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체험소득 및 방문객



총 소득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23(2022)

마을기업 선정(예비포함)

사업비 60(22)백만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등

2023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비 3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솔잎 입욕제 등 상품 개발

2023

사회적경제기업 협업모델 지원사업

사업비 30백만원
주관기관 경상남도
- 협업을 통한 지역매주와
주전부리 개발

2023

농촌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12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당숲마을과 함께하는
숲속음악회

마을만들기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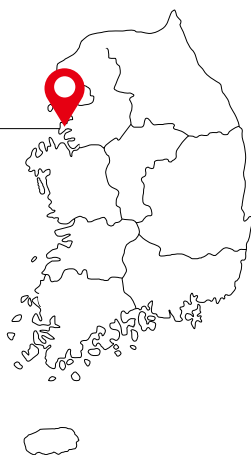
토종으로 꽃피우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2리 마을

토종농산물 출하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궁평2리 마을은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전국 제1호 로컬푸드 거점집하장을 유치·운영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궁평2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358
인구수(가구)	305명(133가구)
마을자원	화성시 로컬푸드 거점집하장, 토종농산물, 국가 민속문화재 제124호 정시영 고택, 국가 민속문화재 제125호 정수영 고택, 지정번호 경기-화성-76호 느티나무 보호수 등



궁평2리 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토종농산물"을 쓰아올린 궁평2리

궁평2리는 고려시대 초 궁(宮)에서 관리하는 땅이라 하여 '궁들', '궁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화성시의 시작이자 경기도의 시작인 궁평2리 마을은 서해와 연결되어 논밭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1800년대 말에 지어진 국가 민속문화재 제124호 정시영 고택과 제125호 정수영 고택이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이 조화로운 궁평2리 마을은 전·현 이장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어우러져 단합력이 높은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바다를 보러 오는 방문객들이 보다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소득창출을 위하여 궁평2리 마을 14개의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토종농산물 종자를 찾아내어 재배하고 있습니다. 토종농산물 종류로는 마을의 농사 면적 순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벼와 이외 블루베리, 포도 등이 있으며 화성시 로컬푸드 거점집하장을 유치해 납품하여 먼 거리 배송의 어려움을 개선하였습니다. 거점집하장은 마을이 직접 운영하며 주민협동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기로 마을주민들의 만남 횟수가 늘어 주민간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 로컬푸드 거점집하장 출하 전 공동작업 중인 마을주민



▲ 선주민과 후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경관개선활동



▲ 토종농산물 흑수박 농사 프로그램

토종농산물 출하로 지속가능한 마을

지역특화상품인 토종농산물을 활용한 요리·재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토종의 가치와 맛을 알리는 흑수박 농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토종씨앗 재배키트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나서서 학교급식에 토종농산물을 공급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동양초등학교에 궁평2리 마을의 토종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궁평2리 마을은 다양한 토종농산물 출하 방식으로 2023년까지 연간 1억원 판매 수익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토종씨앗 보존활동



▲ 토종농산물 학교급식재료 공급

엄마 손맛 흥내 내기에서 시작된 전국 제1호 로컬푸드 거점집하장

행복마을 NEWS

신토불이 토종농부 공동체 농기별 월소득 100~400만원까지 증가 궁평2리를 넘어 서신면 전체로 확산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다시 먹고 싶어 여러 레시피를 시도해보던 궁평2리 마을의 한 주민은 그 맛의 비결이 양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궁평2리 마을의 50여 개 농가에는 집집마다 토종농산물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

이에 가족을 먹이려고 키웠던 토종농산물을 마을단위로 확산시키고자 화성시 로컬푸드 거점집하장을 운영·유치하기에 이르렀

다. 집하장은 주민협동을 통해 운영하며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선오이·조선파·흑수박·사과참외 등이 인기 작물이다. 궁평2리 마을의 농부들은 “토종이 맛도 좋지만 키우기도 쉽다”라고 강조한다. 향후 토종농산물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토종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마을축제 “토종농산물” 나눔 활동

“
나도 모르게 머무르게 되는
토종마을

”



▲ 토종농산물 참맛있기 프로그램



▲ 토종마을 시범마을 워크숍



▲ 로컬푸드 거점집하장 개장 농업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가는 농가들의 공동작업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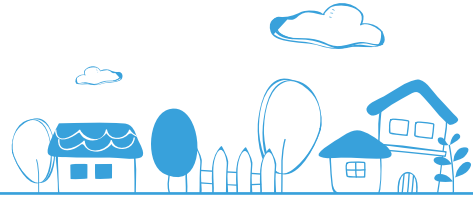
전국 제1호 로컬푸드 거점집하장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가 어려운 고령농과 영세농, 여성 농 등으로부터 농산물을 수거·운송·판매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마을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을 돕고 있습니다. 거점집하장 설치 후 운송비용 및 노동시간·노동력을 대폭 절감하여 월평균 농가별 소득이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궁평2리 마을을 넘어 서신면 전체가 로컬푸드 거점집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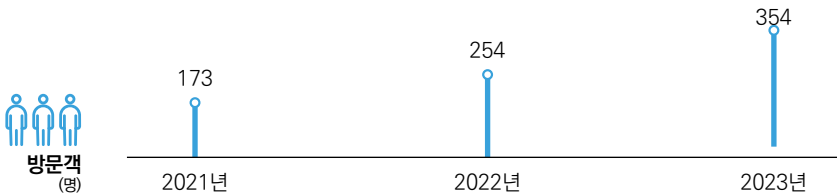
하나로 어우러지는 마을과 마을

농촌현장포럼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 안전 마을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선주민과 후주민이 함께 폐비닐 수거활동과 마을 안길을 노랗게 물들이는 토종배추 꽃길 조성 등 마을경관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마을회 회원들은 후주민 가구에 방문하여 귀촌·귀농 환영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떡국 떡·송편 등의 선물을 마을주민들과 나누고 있으며 명절 외에도 마을회 및 기타 마을조직에서는 상시 김치와 딸기 등을 나누어 마을화합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의 취약 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토종배추김치나눔 등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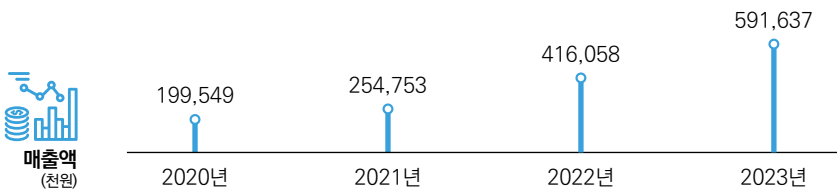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체험프로그램 방문객



로컬푸드 거점집하장 총 판매금액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20.04 ~ 2020.11 시군역량강화사업 사업비 48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발전계획 수립	2021.07 ~ 2021.11 시군역량강화사업 사업비 17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도시락소품(도시민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촌교류 활성화	2021.12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사업비 1,800백만원 (학교급식지원예산) 주관기관 화성시 - 전국 최초 토종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동양초등학교)	
2022.01 ~ 2022.11 화성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업비 5백만원 주관기관 화성시 - 지역 초등학생 대상 토종농산물 재배 체험 - 토종배추김치나눔 행사 등	2022.03 ~ 2023.02 거점집하장 시범사업 사업비 14백만원 주관기관 화성시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배송차량을 통한 로컬푸드 매장 납품	2022.07 ~ 2022.11 시군역량강화사업 사업비 15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도시락소품(도시민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촌교류 활성화	2023.01 ~ 2023.11 화성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업비 10백만원 주관기관 화성시 - 지역 초등학생 대상 토종농산물 재배 체험 - 토종배추김치나눔 행사 등

마을만들기
입선





아이들과 머물기 좋은 힐링 마을 청송군 안덕면 백석탄골부리마을

지역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던 백석탄골부리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겸하며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선사하고, 관광객에게는 다채로운 체험 축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힐링 마을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백석탄골부리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백석탄로 541-21
인구수(가구)	165명(95가구)
마을자원	참다슬기(골부리), 신성리 공룡 발자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만안 자암 단애, 방호정 감입곡류천, 백석탄 계곡, 백석탄 포토홀, 청송 백석탄 다슬기 체험 축제, 활성화센터, 골부리 광장, 백석탄골부리캠핑장 등



백석탄골부리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백석탄계곡

아름다운 계곡과 웅장한 경관을 자랑하는 백석탄골부리마을은 토착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백석탄은 하얀 돌이 반짝거리는 개울이라는 뜻으로 하천 침식작용인 포트홀(돌개구멍)과 사층리·이암편·생교란작용 등 다양한 퇴적구조가 발달한 곳입니다. 청송 국가지질공원의 명소인 백석탄 포트홀은 계곡의 흐름에 따라 오랜 시간동안 풍화 침식되어 암반에 향아리 모양이 깊은 구멍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골부리는 다슬기의 경상도 사투리로서 백석탄골부리마을에서는 마을 대표 축제인 청송 백석탄 다슬기 체험 축제와 다슬기 채집, 요리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석탄골부리마을은 20여 년 전 지역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시작하여 2021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

었습니다. 각종 농촌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백석탄골부리캠핑장은 백석탄 계곡에 자리잡아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권역 하드웨어로는 활성화센터와 골부리 광장 등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청송군청에서 관리하는 청송자연휴양림이 있으며 백두대간에 속하는 산지로서 삼림욕에 최적입니다. 또한 안덕면 만안에 위치하며 붉은 절벽을 뜻하는 자암 단애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신성계곡의 대표적인 절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아 환경 교육 측면을 부각시킨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활성화센터



▲ 체험프로그램 힐링캠핑



▲ 다슬기 체험 축제

토착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2009년 내수면 어업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청송 백석탄 다슬기 체험 축제를 운영하고, 하천 정화와 생태보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 설립한 백석탄골부리영농조합법인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하여 자원 소득화 활동으로 이어 나가는 경제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44가구 중 11가구가 귀농·귀촌 가구이며 토착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토종어패류 방류활동



▲ 축제 시 무분별한 채취 예방

지역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사업의 씨앗이 되다

행복마을 NEWS

**백석탄골부리영농조합법인 설립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
마을 자원 소득화와 경제공동체 활동
사회복지공동모금 기부에 앞장**

국가지질공원의 명소인 백석탄 포트홀이 있는 백석탄골부리 마을은 20여 년 전 지역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비영리 마을공동체를 설립했다. 하천정화와 생태보존 등의 활동은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져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받게 되었고, 이는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
지금도 각종 마을사업에 도전하며 꾸준히 주민의 역량을 강화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마을발전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하며 마을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입선하여 받은 상금 중 백만 원을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부하여 행복농촌을 뜻 깊게 실천하기도 하였다.



▲ 마을주민 관광해설사 육성

“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마을

”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인 마을 활성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한 이후 2019년 시군창의사업,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컨설팅, 2022년 완료지구 사후관리 컨설팅 등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내수면 어업계 법인과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백석탄골부리영농조합법인 모두 조직화를 통하여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우쿨렐레 동아리를 계기로 난타·색소폰·아코디언 동아리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안덕면 한 마음대잔치, 요양병원, 노인대학 개강식 등 지역 내 행사에 재능기부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 체험프로그램 골부리김밥만들기



▲ 주민화합 한마당 마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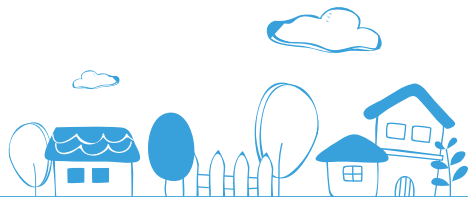


▲ 색소폰 동아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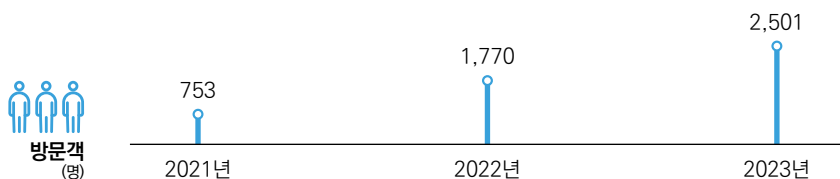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

마을 내 한해 농사 마무리를 함께하던 호미걸이(풋구)라는 주민화합 활동을 발전시켜 2022년 제11회 청송 백석탄다슬기 체험 축제를 주관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제12회 개최를 준비하던 중 인근지역인 예천군의 수해를 고려하여 잠정 연기한 상태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안전사고 발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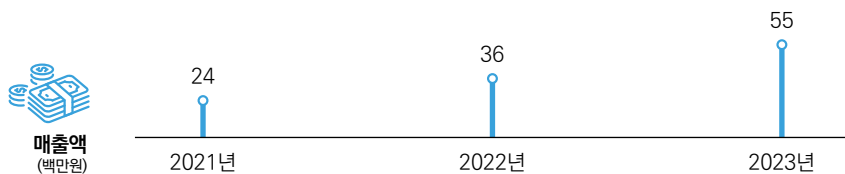
마을사업성과



체험프로그램 방문객



총 소득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5 ~ 2020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사업비 380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활성화센터, 골부리 광장,
다목적주차장, 생태쉼터 등

2019

시군창의사업

사업비 15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2022

시군역량강화사업

사업비 2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활성화 컨설팅

2022

청송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3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중심지 및 배후마을
공동체 활성화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

2023

사업자지원사업

사업비 34백만원
주관기관 (주)한국수력원자력
- 어린이 놀이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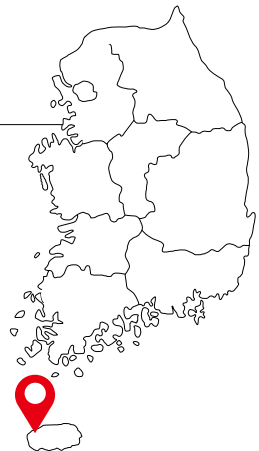


영등할망이 처음 오시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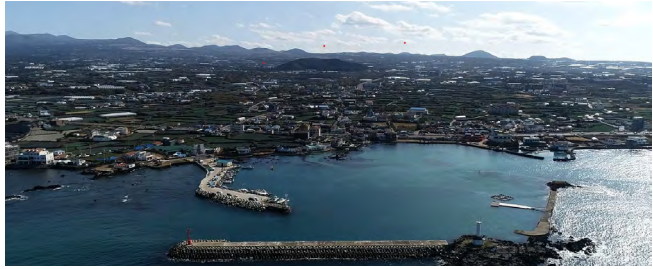
제주신화 속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들어오는 마을로 유명한
귀덕1리 마을은 인문스튜디오 협동조합 '노리왓'을 만들어 원주민과
정착주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어르신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귀덕1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로97-2
인구수(가구)	1,138명(582가구)
마을자원	밭담길, 잣담(밭담), 간쪽파(전국최초 출하), 정동벌립 무형문화재, 영등공원 및 영등신맛이 환영제, 마을축제 귀덕밤마실(야시장), 궤물수덕, 귀덕 티쳐, 귀덕향사, 만원의 행복, 행복주택 등



귀덕리 마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마을전경

제주시 서쪽 25km에 위치한 귀덕1리 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문화·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힘을 모은 자 체복지기금(만원의 행복)은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 꼽히며 2019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운동의 바탕에는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한 협력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봉착한 귀덕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주민들이 나서서 행복주택을 지었습니다.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토지 기탁과 기금 후원, 재능기부 등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은 결과 전교생 63명까지 줄어들었던 귀덕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90명까지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마을을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한 귀덕1리 마을은 주민화합의 힘을 믿습

니다.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마을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은 매해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반농반어의 생활문화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귀덕1리 마을은 어로활동과 더불어 대표 농산물로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쪽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화자원으로는 용천수로 유명한 궤물수덕과 1920년대 초등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던 귀덕향사, 발담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대표적인 발담 유형 중 하나인 잣담이 많아 ‘잣질동네’로 불리기도 하는데, 발담이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서 제주농업문화의 가치를 품고 있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 우리마을 매거진 만들기 인터뷰(어린이 기자단)

202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우리 마을 인문놀이터
꿈·들
상반기 어린이 참가자 모집

보글보글 마을요리사	뚜벅뚜벅 문화탐험대 + 문화기록단
담당강사 : 공병	담당강사 : 홍병 / 연미병
1주차-차곡차곡 접는 김밥 (5/21 : 초등 1~3학년) 2주차-조물조물 유부초밥 (5/28 : 초등 4~6학년) 3주차-반듯반듯 샌드위치 (6/11 : 초등 1~3학년) 4주차-복싹싹 핫케이크 (6/18초등 4~6학년)	1,2주차-유배의 섬, 제주에서 나눈 무정 - 김정희와 이상적 (5/22, 5/29 : 초등 4~6학년) 3,4주차-제철활동, 기록활동 (6/12, 6/19 : 초등 4~6학년) 5,6주차-제주의 생명수, 용천수 (7/3, 7/10 : 초등 1~3학년) 7,8주차-제철활동, 기록활동 (7/17, 7/24 : 초등 1~3학년)

▲ 어린이 대상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 문화가 있는 날(마을창작공연)

마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만원의 행복’은 출향민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이 2017년 6월부터 매월 1만원씩 복지기금을 모금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인 금액은 어르신들의 생신 잔치와 효도 관광, 건강 프로그램 운영, 취약층 생필품 지원에 쓰입니다. ‘귀덕 아카이브’는 2019년부터 귀덕1리 마을 어르신들의 사진을 복원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마을의 역사를 담은 자료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서 타지에 있는 자녀와 출향민에게 마을 일상을 공유할 수 있으며 플랫폼(<http://archive-gwideok.org>)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만원의 행복(어르신 생신)



▲ 귀덕 아카이브

제주의 신화와 해안경관을 콘텐츠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행복마을 NEWS

인문스튜디오 협동조합 노리왔으로
교육·문화콘텐츠 생성
전문인력 귀덕 티쳐 발굴
귀덕 아카이브로
마을의 역사를 기록·공유하다

자연과 세상이 주는 풍파에 순응하며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온 귀덕1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전통을 보존하고, 그 명맥을 잇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

제주의 인문학적 요소를 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설립한 인문스튜디오 협동조합 노리왔은 선주민과 후주민의 화합 역시 이끌어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귀덕 아카이브는 지역 어르신들의 살아생전 모습을 기록하고, 자손들이 추억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초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심화되어 제주의 소중한 역사를 담은 작업이 되었다. 로컬문화전성시대에 귀덕1리의 활동은 제주 문화의 큰 축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축제 귀덕밤마실(야시장)

“
바다향기와 연결된
따뜻한 공동체 마을

”



▲ 인문놀이터(식생활 요리 클래스)



▲ 인문놀이터(낭독&티)



▲ 마을축제 영등신맛이 환영제

인문스튜디오 협동조합 노리왓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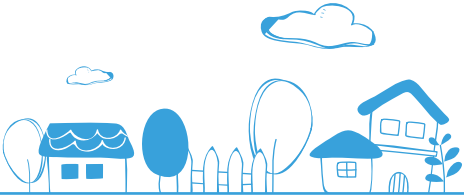
귀덕1리 마을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고유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귀덕 티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접목되는 낭독&티, 글&발 미식회, 금손 작업실, 식생활 요리 클래스, 요가 등 다양한 문화 클래스를 운영하고 마을 옛 지명 지도 만들기, 마을 소식지 만들기 등 귀덕1리 마을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추진하는 마을축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귀덕밤마실’은 과거 장날을 복원하는 콘셉트의 문화야시장으로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플리마켓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마을활력과의 후원으로 선주민과 후주민이 함께 기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신맛이 환영제’는 해녀와 어민들의 무사 안녕과 풍요를 선사하고 보름간 머물다 간다는 영등신(영등할망)을 주제로 매년 음력 2월 1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도에서는 꽃샘추위(제주도에서는 영등기간이라 함)와 함께 풍요를 가져다주는 영등신을 위해 환영제와 송별제를 열어 전통제례 영등굿에 내재한 생명과 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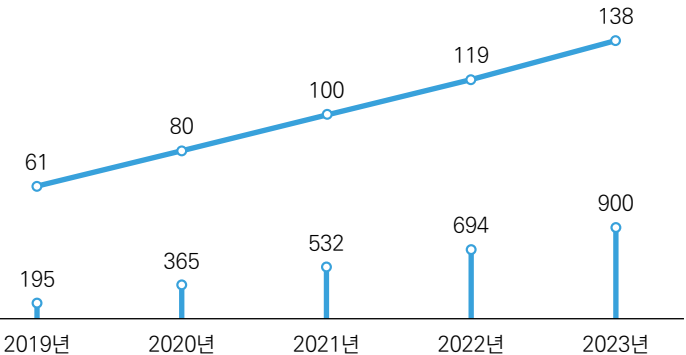
마을 자립 복지기금 조성 : 만원의 행복



누적기금액
(백만원)



누적후원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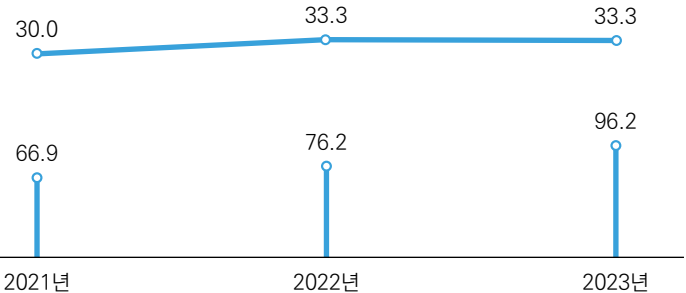
인문스튜디오 협동조합 노리앗 클래스 운영



주민참여율
(%)



누적매출액
(백만원)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20.01 ~ 2020.05

마을공동체 사업

사업비 100백만원
주관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교육장 리모델링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2023.01 ~ 2024.12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사업비 2,25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생활여건개선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사례집

02 농촌만들기

농촌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며
 농촌의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농촌마을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	52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5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 케어팜	6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7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농촌문화터미널	76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농촌 공공임대주택	82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하모니힐링스쿨	88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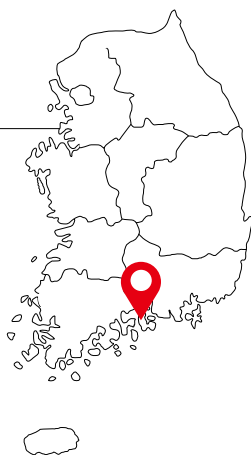
함께 머무르며 함께 아름다운 남해군 서면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

폐교를 활용한 농촌휴식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은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체험의 공간이 되며,
관계인구에게는 귀농귀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입니다.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을 소개합니다.

- | | |
|------|--|
| 농촌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2645 |
| 농촌자원 | (H/W) 복합문화센터, 우프(WWOOF)농장,
캠핑장, 운동장 등
(S/W) 팜파티, 우리가족 페스티벌(티볼 축제),
총 동창회, 밥 먹는 날, 차 DAY 등 |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핼파티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은 도산권역 4개 마을(회룡·중현·현촌·도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룡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 통칭합니다. 1935년 개교한 중현초등학교가 인구감소로 인해 2021년 폐교되면서, 지역민들은 추억을 머금고 있는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마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2021년 중현초등학교를 활용한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관광객·관계인가가 함께 머물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준공 후 마을수익이 45% 증가하면서 마을별 수익금 배당·마을환경정비·순번제 일자리 제공·장학금 기탁 등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있으며, 그라운드 골프 동호회·밥 먹는 날·차 DAY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거점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2013년 도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을 모태로 시작하였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는 회룡농촌체험휴양마을로 나아갔으며, 유휴시설을 활용한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을 통하여 단순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넘어서 관광객부터 관계인가까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룡마을은 지속가능한 마을을 목표로 2023년 2월 유치한 우프(WWOOF) 인증과 지역 대표 축제 핼파티,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을 개최하며 역량과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정착인가가 증가하는 마을이 되고자 타 지역과 차별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남해군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은 모임의 장소가 되어 오늘도 다양하고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밥 먹는 날(공유주방)



▲ 차 DAY(공유주방과 연계된 야외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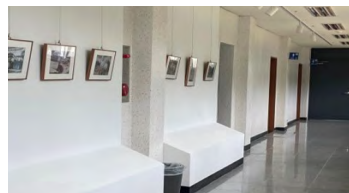
▲ 함께 일하는 주민(순번제 일자리)

유희시설을 활용한 만남의 장

노후화되고 방치되어 있던 폐교 중현초등학교를 주민·관광객·관계인가가 함께 머물며 추억을 쌓아가는 공간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체험의 공간이 되며, 관계인가에게는 귀농귀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복도는 갤러리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의 소통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교실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어 관광객의 체류공간이 되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



▲ 복도 갤러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회룡마을,
함께의 미덕으로 나아가다

행복농촌
NEWS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학교를
다시 만남의 장으로
복합문화공간 준공 후 수익 45% 증가
남해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휴양프로그램 인기**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던 중현초등학교가 폐교되자 지역민들은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복

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은 거점공간으로 자리잡아 다시금 지역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

한편 전 세계 150여개의 국가가 활동하고 있는 우프(WWOOF)를 유치하여 세계인들을 초대하고 있다. 우프는 친환경적 삶을 추구하

는 농장에서 노동과 숙식을 주고받으며, 비화폐 교환의 경험을 축적하는 운동이다. 회룡마을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윤작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을 선정하여 '세상을 바꾸는' 여행자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 다시, 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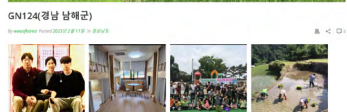
잠시, 자주, 계속
머뭇거리는 마을



▲ 마을공동체대회



▲ 우리가족 페스티벌



▲ 우프 인증(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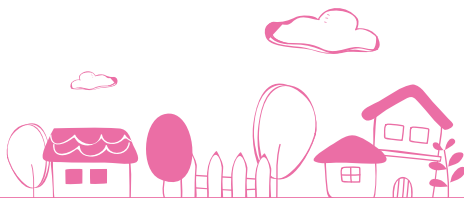
팜파티와 함께하는 우리가족 페스티벌

회룡마을의 연중행사로 자리잡은 ‘팜파티’와 ‘함께하는 우리가족 페스티벌(티볼 축제)’은 마을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팜파티’는 남해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우리만의 포장지를 만들어 제작된 상품을 전시하고, 농산물 경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직접 농사지는 믿음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으며 매출 또한 높습니다. ‘우리가족 페스티벌’은 이른 봄에 시작하여 늦가을에 끝나는 ‘리그제 가족운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티볼대회는 이제 권역에 없어서는 안 될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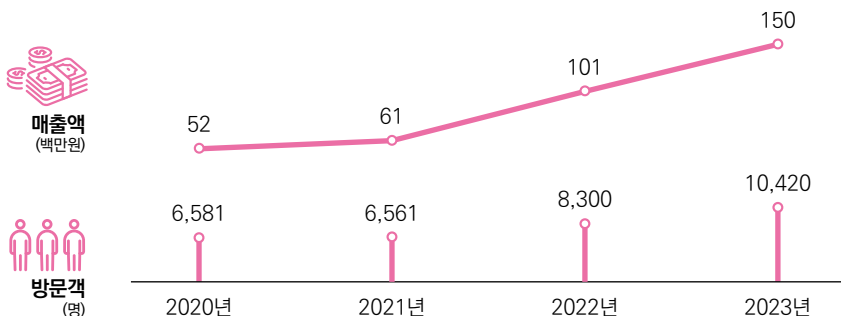
세계와 이어지는 우프(WWOOF) 농장

우프는 유기농가와 자원봉사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운동으로서 전 세계 150여 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 세상을 바꾸는 여행'이라는 우프의 슬로건은 회룡마을의 활동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룡마을은 사라져가는 남해 유자를 지키고 다량논 토종벼를 부활시키고자 체험객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해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인에게 남해를 자랑하고 우리 마을의 고유한 농장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여행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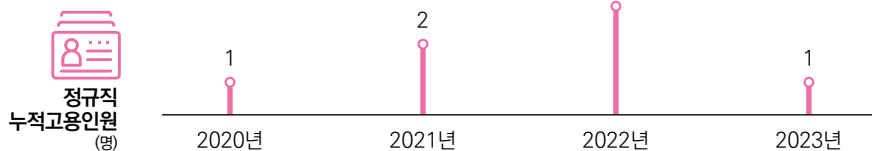
사업성과



체험소득 및 방문객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21

농촌유희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사업비 45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폐교 리모델링 활용사업

2021.04 ~ 2022.11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비 7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도시민이 6개월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2022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사업비 15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소규모 단위
프로그램개발사업

2022

농촌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1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의 전통을 계승하고
마을의 결속력을 가지고
다같이 즐기는 마을축제

2023

경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사업비 5백만원
주관기관 경남관광재단
-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정여행상품개발

농촌만들기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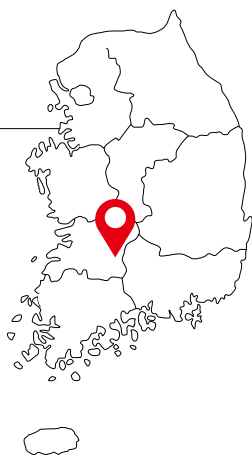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 마령!

진안군 마령면

마령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마령활력센터를 만들어
면소재지의 문화·복지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마령주민협동조합을 결성해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
마령면을 소개합니다.

농촌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농촌자원	(H/W) 마령활력센터, 마령뜰, 북카페, 공유카페 마령장, 작은 목욕탕 등 (S/W) 마령면 토종씨앗 수집 전수조사, 제철요리 디너콘서트, 토종씨앗 활용 먹거리 레시피북 총 3권 발간 등



마령면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북카페

마령면은 과거 진안군 남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인구감소로 쇠락을 거듭하였고 이를 만회할 도약의 발판으로 2016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마령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통의 장이 될 마령활력센터를 유치하였고, 마령주민협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마령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마령면 지역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면서 자립 재산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0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지역 공동체 활동 확산,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마령면 활동 및 프로그램 확장, 소통과 치유의 인프라 제공'이라는

최종 발전 목표를 확립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수요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치유 프로그램, 둘째, 현지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사업, 셋째, 주민들의 화합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마령면 내의 여러 조직과 주민들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령면 활성화를 위한 많은 분들의 노고와 간절한 마음이 뭉쳐 마령면 내 21개 마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와 문화적 서비스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월한 교통입지로 배후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을 통하여 마령면 주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마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베이스캠프가 되고자 합니다.



▲ 어르신 200인분 식사 제공(먹거리 돌봄)



▲ 어린이 간식 제공(농특산물 특화 활동)



▲ 마령장 일일차집(공유카페)

토종종자를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플랜

마령면 21개 마을을 전수조사하여 지역에 남아있는 토종종자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한 먹거리 레시피 북 등 3권의 기록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토종종자인 키 작은 얇은뱅이밀을 활용한 빵과 쿠키를 만드는 베이킹 모임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부터 뛰어난 맛으로 유명한 토종 부엉다리콩으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종종자를 활용한 건강하고 맛 좋은 음식을 지역민들이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마령장(먹거리 나눔)



▲ 핑거푸드 레시피 개발(지역농산물 개발)

진안군 남부의 중심지였으나 인구감소로 쇠락하던 마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도약하다

행복농촌 NEWS

**마령활력센터와 마령돌 조성
핵심사업으로 토종먹거리 사업 전개
토종씨앗 조사발굴사업 이루어져
주민이 운영주체가 되어 마을 활성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던 마령면은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2016년부터 5개년에 걸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전개했다.

지역 고유의 자원과 공동체 문화를 살리고 그것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농촌발전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사람과 사람 그리고 마을과 배후마을을 잇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최근 마령면 행정복지센터와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지사협')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관내 80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신을 축하하는 행복바구니를 전달했다. 이는 2021년부터 마령면 지사협이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 중 하나로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며 매년 진행되고 있다.



▲ 마령들

“

서로 아우르고 어우러져
행복한 삶터로 재탄생하는 마을

”



▲ 할머니 선생님의 재미있는 공예교실



▲ 마이산 금당산에서의 명상 프로그램



▲ 제철요리 디너콘서트(농산물 특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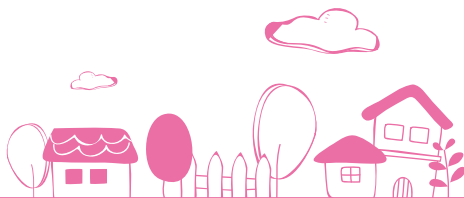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고령화로 인해 치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주민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배후마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교실’을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협동조합 차원에서 아로마 척추마사지 프로그램과 마이산 금당산에서의 명상, 필라테스 등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민들로부터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채롭게 열리는 주민화합의 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간에는 ‘월장’이라는 이름으로 플리마켓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주체 설립 이후에는 ‘마령장’이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하여 사진전시·공연·플리마켓·먹거리 나눔·일일찻집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요리 디너콘서트를 매월 진행하여 지역의 좋은 식재료를 만든 참신한 요리를 맛보게 하고, 고정적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령면은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생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여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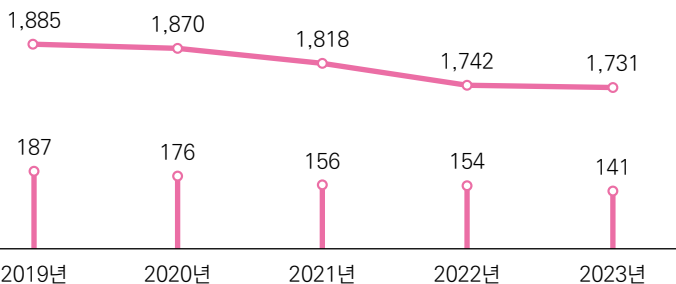
마령면 인구 현황



인구
(명)



전인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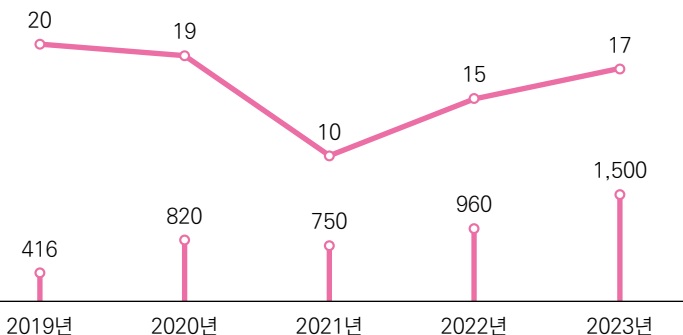
공공서비스 수혜대상



문화프로그램
(개)



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명)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22

시군역량강화사업

사업비 19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마령활력센터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2023

시군역량강화사업

사업비 2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마령활력센터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2023

진안교육지원청 마을학교

사업비 10백만원
주관기관 교육부
- 초·중·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농촌만들기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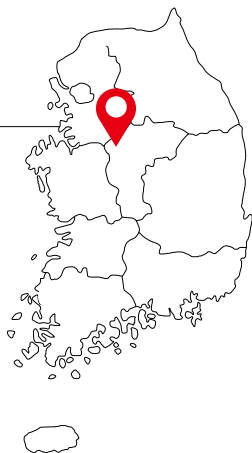


방방곡곡 온기를 전하는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 케어팜

이전된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생거진천 케어팜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비롯해
마을단위 커뮤니티 정원 등을 조성하여 농업의 가치를
지역사회 복지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생거진천 케어팜을 소개합니다.

농촌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초평로 36-16
농촌자원 (H/W) 프로그램실, 텃밭, 비닐하우스 등
(S/W) 공공일자리지원사업,
사회적농업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
사회서비스 돌봄사업(보건복지부),
사회적 농장, 농업학교 등



진천읍 생거진천 케어팜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생거진천 케어팜 전경

생거진천 케어팜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유희화 된 동식물관리사 시설을 활용한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을 통하여 2023년 조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등의 관련부서가 함께 정책 협의를 한 결과,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 돌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설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케어팜은 치유(care)와 농장(farm)의 합성어로써 다양한 형태의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 돌봄 모델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인 농작물 생산체험과 원예체험 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도와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누구나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케어팜 사업은 ‘동네 공동체에서 만나는 케어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에 진천군에서는 유휴농업용지를 활용하여 넓은 케어팜을 만드는 구상을 하였습니다.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22.12.02.)하였고,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등 케어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일사업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천군은 2022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대상 선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농작물 생산체험



▲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원예체험



▲ 노인 화분만들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향후계획 마련

지역사회 및 마을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커뮤니티 케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여 농촌 경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과 환경돌봄을 연계할 수 있으며 원예작물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로컬푸드 및 농산물 가공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찾아가는 농업학교를 운영하며 온실형 아쿠아 포닉스 스마트 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노인 도자기만들기(독거노인에게 전달)



▲ 노인 사회적 일자리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의 케어팜 진천군, 사랑으로 꽃피우다

행복농촌 NEWS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찾아가는 농업학교 운영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포럼

다양한 형태의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과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팜(carefarm)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복지 모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진천군이 케어팜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재활의 다양한 프로그램

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케어팜 내 웰컴센터(Welcome Center)를 준공하였다. 또한 첨단 농장 온실 조성을 통한 지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 위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촌형 돌봄 모델로서의 행보가 주목된다.



▲ 찾아가는 농업학교 운영

“

희망의 씨앗을 심어가며
발전의 꽃을 피워낸 마을

”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생거진천 케어팜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과 돌봄 서비스를 융합하는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케어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관리를 진천군이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순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진천군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식



▲ 운영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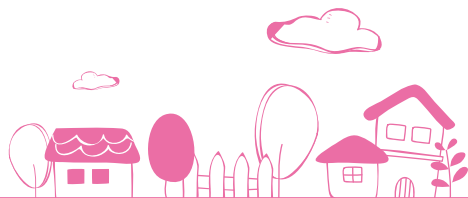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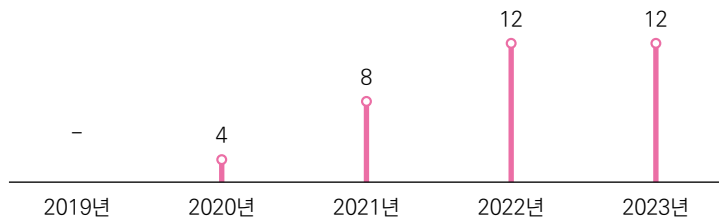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유허 공간 활용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의 동식물관리사 시설과 비닐하우스 등 영농활동을 위한 부지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회적 농업의 거점시설 조성 시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소외 없는 통합돌봄 거점시설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을 운영할 거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 부서 간의 논의를 거쳐 진천군의 부족한 복지 서비스 지원의 거점공간으로 발 빠르게 재편되었고 공간 이용과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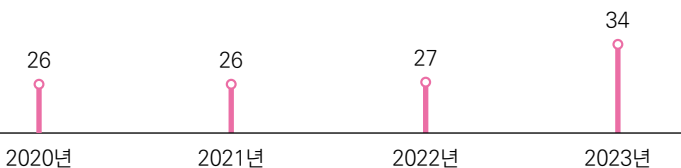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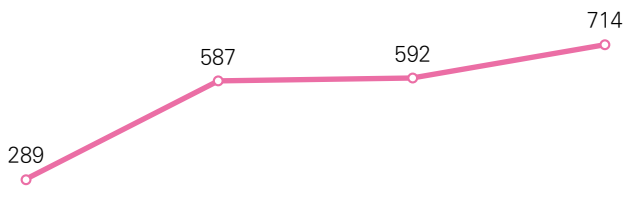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수혜대상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20 ~ 2022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사업비 150백만원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지원

2020 ~ 2024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사업비 30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지원

2020 ~ 계속

노인 및 장애인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비 180백만원
주관기관 진천군
- 케어팜 공공 일자리 지원

2022 ~ 2023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사업비 300백만원
주관기관 충청북도
- 영농시설 인프라 개선

농촌만들기
동상



아동에서 노인까지 모두 행복한 예산군 응봉면

응봉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응봉면 갈대꽃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예산, 모두가 행복한 응봉 문화공동체를 목표로 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복지·교육 격차해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 ● ●
응봉면을 소개합니다.

농촌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140-11

농촌자원 (H/W) 갈대꽃커뮤니티센터 등
(S/W) 하늘꿈 사회적 협동조합,
하늘꿈 지역아동센터,
응봉갈대 꽃마을학교,
행복통, 응봉기자단 등



응봉면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농촌전경

응봉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군-응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간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인 갈대꽃커뮤니티센터는 중심지 거점시설로서 하늘꿈 사회적 협동조합, 하늘꿈 지역아동센터, 응봉갈대꽃마을학교의 3개 분과로 조직되며 각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꿈 지역아동센터는 응봉면 지역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교육과 더불어 건전한 놀이문화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체계적인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봉면은 주민복지 및 문화행사를 통하여 중심지뿐만 아니라 배후마을과 문화복지 혜택을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협업으로는 우리 동네 소식 알리미 우체통인 '행복통'을 제작하여 마을주민과의 소식 전달 및 공동체 의식 강화, 면내 교육프로그램 공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처럼 응봉면은 지속적인 사업 관심 유도와 참여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배후마을까지 펼쳐서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심지와 배후마을, 아이들과 마을어르신 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행복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프로그램(하늘꿈 사회적 협동조합)



▲ 우리 동네 소식 알리미 우체통 <행복통> 제작



▲ 응봉기자단(예산군 교육체육과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응봉면 홍보 및 배후마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응봉면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형성하고 홍보물품 및 상품을 개발하여 응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홍보 효과를 증대시켰으며 배후마을의 사업홍보 및 맞춤형 프로그램도 시행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아동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응봉기자단'과 함께 응봉면의 소식을 담아 중심지 및 배후마을에 배포하여 소식전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 배달강좌 노래교실, 텃밭가꾸기, 감자캐기체험 등을 통해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동 독서학교, 어르신 독서학교(작은 도서관)



▲ 아동 기타동아리(특화프로그램)

거점시설을 통하여 마을의 향기를 전파하는 아동이 행복한 예산, 모두가 행복한 응봉

행복농촌 NEWS

**중심지 거점시설
갈대꽃커뮤니티센터 설립
최신 정보통신기술 ICT 시스템 구축
특성화 교육으로 자립형 공동체 육성
마을 소식 알리기 '행복통' 제작**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한 응봉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갈대꽃

커뮤니티센터를 통하여 배후마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기반을 다지고 있다. 주민은 물론 배후마을 주민들까지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최근에는 동네방네 찾아가는 문화마당 '레트로 응-봉'을 진행하였다.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 찍는 '응봉사진관'과 레트로 감성의 놀이공간 '레트로 놀이터'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목을 끌었다.



▲ 온마을 크리스마스 축제(아동들이 준비위원회)

“

소중한 가치를 고수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마을

”



▲ 노인대학



▲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문화배달부)



▲ 농촌체험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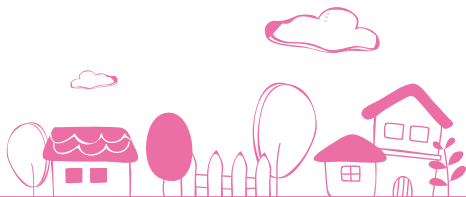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자립형 공동체 육성

응봉면은 사무장 양성교육과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 등을 통해 갈대꽃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전문적인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한 주민강사 양성교육에서는 바리스타·토탈 공예·전통놀이지도 등의 교육이 열렸습니다. 더불어 배후마을 주민이 문화·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강사를 배후마을에 직접 방문하게 하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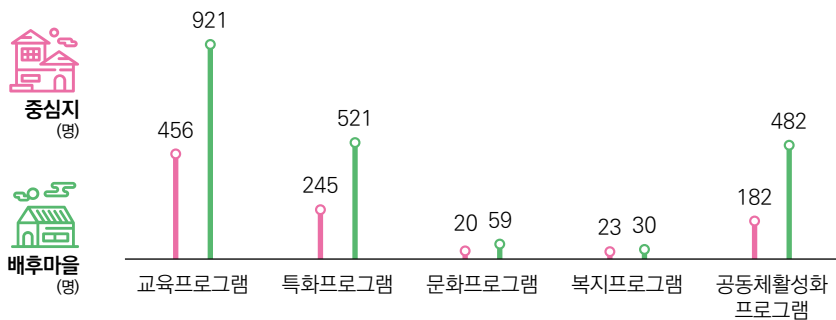
지역조직간 높은 연계성을 통해 아동 복지체계 구축

응봉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아동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일잔치를 개최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범대와 협업하여 아동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범죄 예방과 안전한 귀갓길을 제공하여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응봉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군과 협업하여 등·하원 알림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교육청과 협업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응봉면은 지속적인 민·관 연계 협업을 통해 지역아동 청소년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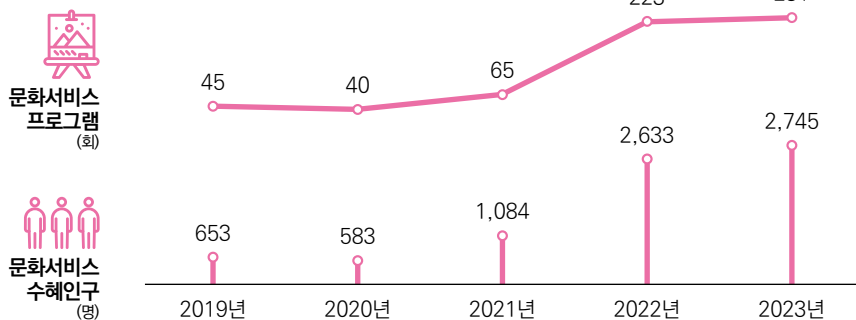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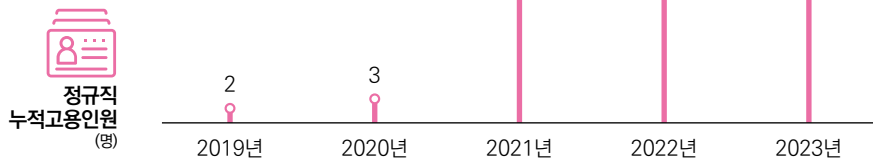
지역주민 참여도



공공서비스 수혜대상



일자리 창출



농촌만들기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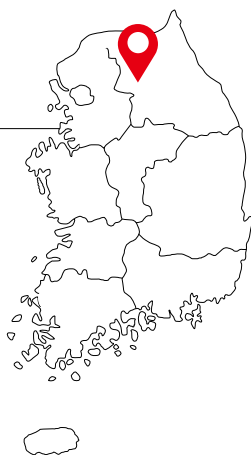


도시와 농촌, 농촌과 농촌을 연결하는 농촌문화 허브 홍천군 홍천읍 홍천농촌문화터미널

홍천군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은 시군창의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농촌관광 및 문화,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을 소개합니다.

농촌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271
농촌자원 (H/W) 다목적광장, 거점센터(교육장, 전시장) 등
(S/W) 시군역량강화, 농촌경제활력화,
국가공모사업 등



홍천읍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지역활동가 양성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은 2019년 시군창의사업을 통하여 조성되었으며 홍천군 농촌만들기 사업의 선두주자이자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허브로서 농촌 지역경제활성화의 네트워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홍천군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는 홍천군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홍천군과 마을공동체 사이에서 주민역량을 개발하고 마을 발전을 도우며 홍천군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은 도시와 농촌, 농촌과 농촌을 이어주는 허브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경관 활용 등의 아이디어를 내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홍천군 농촌문화 메이커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개발사업의 마중물 사업이 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인적자원

과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발굴→진입 및 육성→성장 및 개화의 단계를 거친 후 ‘홍천농촌문화터미널’ 협의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형태의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농촌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 마을사업 사후관리, 부진지구 재활성화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사업 준비 과정 교육을 통해 농촌관광 상품 기획 및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홍천농촌문화터미널’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농촌축제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지역민들과 관광객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배움과 정을 쌓고 있습니다.



▲ 마을리더 역량강화



▲ 농촌체험휴양마을 호스트 양성



▲ 살둔마을 당대이 힐링캠프 프로그램

차별화된 지역 네트워크 모델 개발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은 홍천군만의 지역 네트워크 개발을 위하여 홍천 농촌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의 집중화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촌관광 협의체들을 한 데로 모아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카약·플라잉 짚·포레스트 어드벤처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고랭지 김장축제, 구절초 축제 등의 계절축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열목어마을 치유프로그램(밥상)



▲ 배바위카누마을 홍천강 카누체험프로그램

홍천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 홍천농촌문화터미널 홍천군 농촌만들기 사업의 선두주자가 되다

행복농촌 NEWS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홍천군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핵심적 가교 역할...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한
마을사업과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민과 방문객을 연결하는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은 홍천군의 다

양한 농촌관광 협의체가 모여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이다. 홍천의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지역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며 홍천의 매력을 널리 뽐내고 있다.

.....
최근에는 전국 아동·청소년들의 창의적 인성교육을 접목한 농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국 지

역아동센터협의회, 동아경제신문사(주), 홍천군과 함께 4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천군 신영재 군수는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을 통한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청소년의 창의적 인성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임직원 모습

“

작은 발자취 하나하나로
큰 성장을 이루는 마을

”



▲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 마을청년단체 지원



▲ 농촌만들기 주민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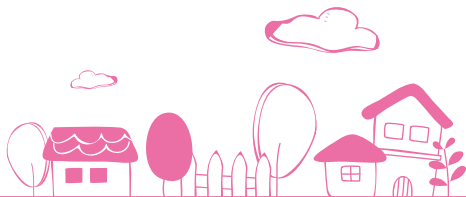
체험·농촌관광·특산물의 지역 소득화 시스템 구축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소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농촌문화터미널 통합브랜드로 ‘홍천애향홀릭’을 개발하여 농촌체험과 함께 로컬푸드를 홍보 및 판매하는 ‘홍천애향홀릭’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경관이 아름답고 즐길거리가 많은 홍천을 관광객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휴양마을 패키지, 숙박 패키지, 단체 패키지 등 50여개의 농촌여행패키지를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로컬푸드로는 강원인삼, 전통장, 각종 건강식품, 한과, 꽃차, 기름, 장아찌 등 200여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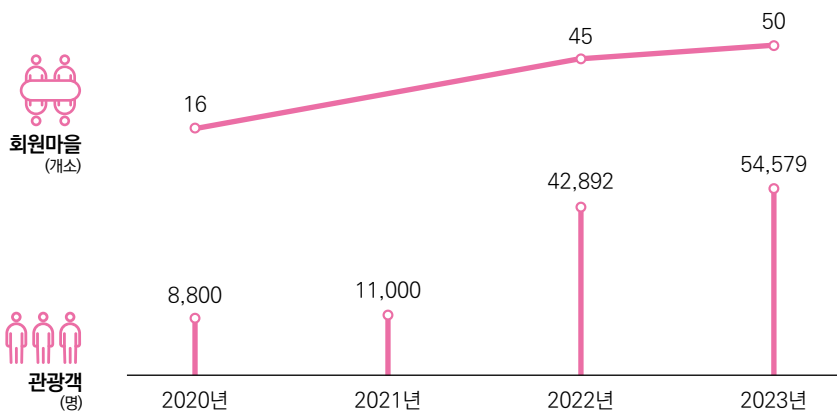
자립화를 위한 장단기 자체 수입사업 시행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자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행, 로컬푸드 등 온라인 상품 판매를 통해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회원마을 및 홍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하는 구조 등 조직의 자립화 및 사회공헌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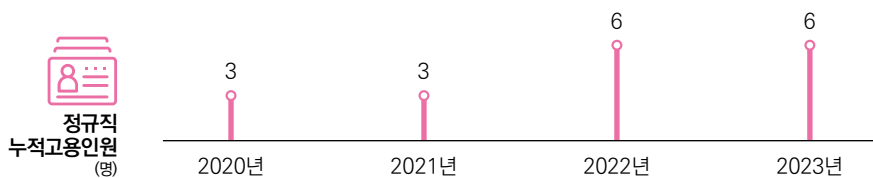
사업성과



회원마을 및 회원마을의 관광객 현황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20 ~ 2021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사업비 15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22~2024

지역단위농촌관광사업

사업비 36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체험관광자원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상품 개발

2022 ~ 2024

시군역량강화사업

사업비 85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발아단계공동체, 완료지구
대상 주민 역량강화교육

농촌만들기
입선





미래의 희망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농촌 공공임대주택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
서천군 비인면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농림축산식품부)과
서천군 종천면의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구 순증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
서천군 농촌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 | | |
|------|---|
| 농촌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총서로 731 일원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총서로 302번길 111 일원 |
| 농촌자원 | (비인면) 청년형 14세대, 가족형 15세대,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마을공동창고 등
(종천면) 공공임대주택 19세대,
주민공동시설 1개 등 |



비인면, 종천면 농촌 공공임대주택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비인면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전경

서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022년에 처음으로 인구 5만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군은 인구정책 위원회를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천군 비인면에는 서천군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 들기 바라는 마음으로 폐교였던 비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젊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29세대를 유치하였습니다. 청년형 14세대, 가족형 15세대로 구성하였고, 2023년 기준 평균연령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총 65명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종천면의 어메니티 복지마을 계획지구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밀집되어있는데 어르신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노인회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과 치유의 숲, 게이트볼장, 파크골프

장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9세대를 유치하였고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이신 어르신 16세대와 청년농업인 2세대, 다문화 가족 1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서천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천군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총 99명(2023년 기준)의 인구 순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11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서천군의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서천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인구 절벽시대의 새로운 우수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종천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전경



▲ 종천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마을회관



▲ 비인면 청년보금자리 분기별 소통 모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한 인구 순증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천군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행정 주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서천군에게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된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모여 인구 순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한 비인면에서 26명, 중천면에서 3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천군 전체 인구 순증에서 62.6%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 비인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청보리 축제



▲ 비인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입주자 생일파티

인구감소로 난항을 겪던 서천군 인구절벽시대의 새로운 우수모델을 꿈꾸다!

행복마을 NEWS

**여인구 유출의 주요원인으로
평가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7년 만에 전입전출 인구가 순증으로
공공임대주택 115세대 추가 조성 계획
근로자 공동주택,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확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으며
인구 5만이 무너졌던 서천군은 새

로운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쾌적
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65
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를 도모하기 위한 서천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각종 편의시
설이 있는 중천면 여메니티 복지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조성한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은 비인면의 폐교 부지를 활
용하였다. 이 두 곳에서 서천군 인
구가 62.6% 순증하며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 이에 멈추지 않고 서
천군은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회복하지 못한 인구 5만명
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정밀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비인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리틀파머' 발대식

“
희망의 노래가 흘러
행복의 성장을 이루는 마을

”

서천군의 우수한 입지 여건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비인면의 폐교 부지 자리에 유치하여 유휴부지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1석2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천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 85%를 65세 이상의 어르신 위주로 모집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서천군 어메니티 복지마을 단지 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 주변에 집약되어 있어 좋은 사업성과를 불러왔으며 입주민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 종천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건강검진)



▲ 종천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원예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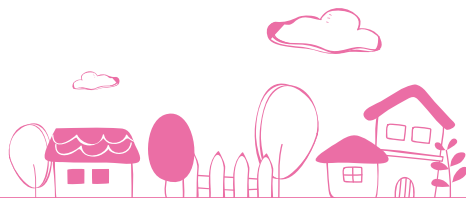


▲ 종천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찾아가는 영화관

주변 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 입주자 자치 공동체를 출범하였으며 전국 최초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어린이 공동체 조합인 '리틀파머' 발대식 등 여러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액션그룹을 통해 서천군 내 가치자원을 찾아내고 주민 주도적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서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건강한 서천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천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의 문화·복지·여가시설과 연계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원예프로그램 등 입주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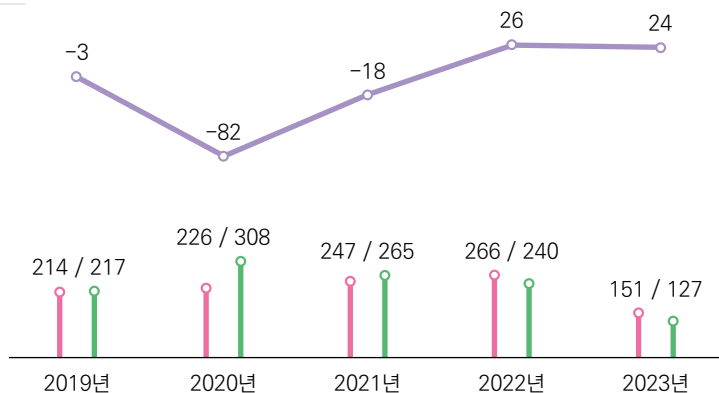


비인면 인구 현황

인구증감
(명)

전입
(명)

전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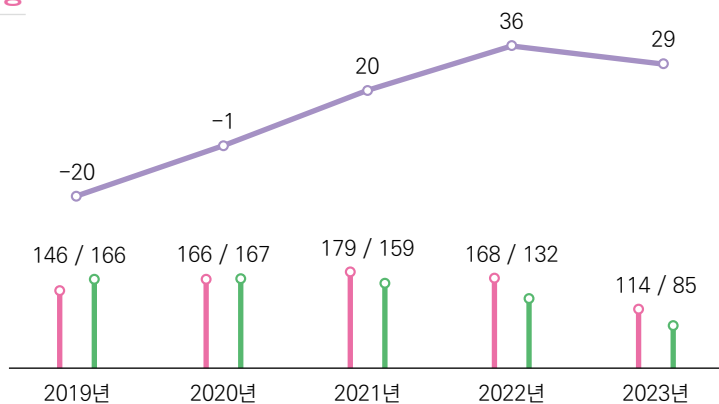


중천면 인구 현황

인구증감
(명)

전입
(명)

전출
(명)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20 ~ 2024

서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비 18,00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해볼까 프로젝트
(블로깅, 소셜다이닝)

2022

국민디자인단

사업비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 청보리마을 축제
- 리틀파머 발대식
- 포트락 파티
- 청년입주자 자치 공동체 출범

농촌만들기
입선





일터, 삶터, 쉼터가 있는 곡성군 목사동면 하모니힐링스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한 하모니힐링스쿨은
문화·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목사동면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일터, 삶터, 쉼터가 있는 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모니힐링스쿨을 소개합니다.

- | | |
|------|--|
| 농촌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2길 11-5 |
| 농촌자원 | (H/W) 들말체육관, 북카페,
하모니힐링스쿨(들말센터), 급식실,
남·녀 요일제 목욕장, 일반야영장(20동),
오토야영장(5동) 등
(S/W) 전환마을 활동가,
자원순환해설사, 반려식물전문가 등 |



목사동면 하모니힐링스쿨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하모니힐링스쿨 본관

목사동면의 정서적 자긍심과 주민 간 소통의 역할을 했던 평호초등학교가 1999년 폐교된 이후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어 지역주민의 재정비 요구가 절실하였습니다. 곡성읍에서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목사동면은 다양한 편의시설로부터 단절되어 있어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하여 폐교부지가 ‘하모니힐링스쿨(들말센터)’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하모니힐링스쿨’은 목사동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중심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 공동체 의식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방면의 활동으로 전환마을 활동가 자원순환해설사·반려식물전문가 양성 과정과 바리스타, 건강강진프로그램, 목공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주민의 수는 2022년 129명에서 2023년 241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배후마을 주민의 참여 수도 2022년 86명에서 2023년 211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 방면으로는 남·녀 요일제 목욕장을 운영하면서 하모니힐링스쿨 본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516명의 지역주민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매일 30명의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보조사업을 통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소득 및 관계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야영장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대하며 세부규약을 제정하는 등의 계획을 실천하여 ‘일터, 삶터, 쉼터가 있는 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 하모니힐링스쿨’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 전환마을 활동가 양성



▲ 반려식물전문가 양성



▲ 들말체육관(주민행사)

지속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하모니힐링스쿨의 지속적인 자립 발전계획을 위해 2022년 잔디마당에 일반야영장 20동, 오토야영장 5동을 조성하였으며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을 받아 운영된 야영장에서 총 1,36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내 지역자활센터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민 4인의 일자리(급식실)와 시설관리보조 2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하모니힐링스쿨의 문화·복지시설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들말야영장



▲ 급식실(경로 무료급식)

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목사동면 주민들 하모니(harmony)로 하나 되다

행복농촌 NEWS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진행 참여주민 수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 배후미를 주민들의 참여도 줄을 이어

폐교 후 방치되어 있던 평호초등학교와 그 부지는 목사동면 생활복지 중심 커뮤니티시설인 하모니힐링스쿨로 재탄생하였다. 이 건물은 목사동면을 둘러싼 지

역 명산인 '삼산'의 세 개 봉우리를 모티브로 지붕 형상을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

BF 인증 취득과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해 내·외부 단차가 없이 드나들기 편리하게 설계된 하모니힐링스쿨, 들말체육관, 급식실, 야영장 등으로 시설물이 구성

되어 있으며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하모니힐링스쿨은 건강한 농촌마을 환경조성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아 2023년 제3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어워드에서 환경조성 공공부문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 목사동 전환마을 선포식

“

마음의 휴식, 자연의 품으로
힐링이 시작되는 농촌

”



▲ 남녀 요일제 목욕장



▲ 무인북카페(주민봉사로 운영)



▲ 문화활동프로그램(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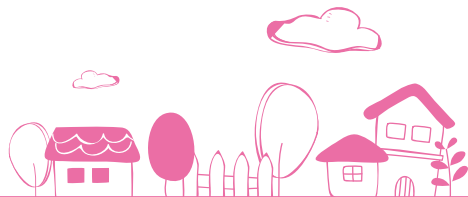
지역주민들이 하나 되어(Harmony) 힐링(Healing)하는 들말센터

하모니힐링스쿨 건물의 외형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와 지역 출신 정원 디자이너의 자문을 통해 지역의 명산(삼산)을 형상화한 건축선을 도입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생활개선회 주민 23인의 봉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무인북카페를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쉼터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 공동체 여섯 팀이 난타, 라인댄스, 수공예, 커피 등 다양한 주제의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생활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관·산학협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하모니힐링스쿨은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제7조 3항 신설)에 따른 시설물 운영 관리비 지원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곡성군 및 지역대학(전남과학대학교)과 협력하여 각종 사업 및 활발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유관기관 7개소 및 유관부서 6개소와의 협업, 12건의 사업 연계 등을 이끌어 하모니힐링스쿨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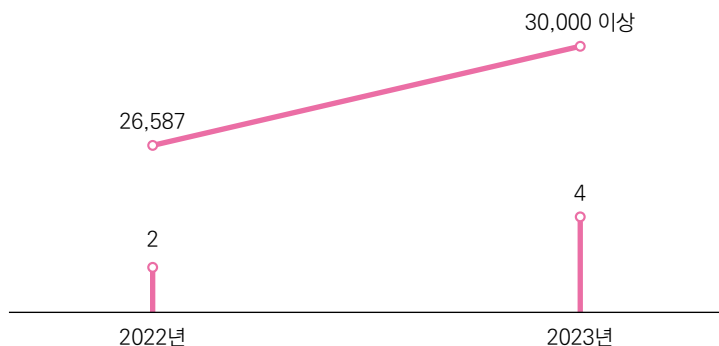
사업성과



배후마을 지역주민 참여도



시설 이용객 및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22.05 ~ 2022.12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지원사업

사업비 25,000천원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 전환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 문화활동프로그램

2022.10 ~ 2022.12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사업비 8,850천원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식 제공

2022.11 ~ 2022.12

반려식물전문가 양성 과정

사업비 5,243천원
주관기관 전남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 반려식물 이론학습
- 반려식물 적용 실제 실습

2022.11 ~ 2022.12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사업비 10,000천원
주관기관 교육부
- 생태환경프로그램 운영
(분리수거함 배부, 환경
캠페인 추진, 관련 기관 견학)

농촌만들기
입선





희망찬 함평의 마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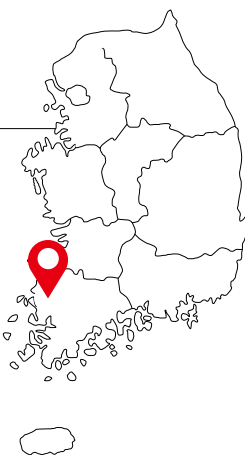
함평군 학교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는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조성되었으며 예비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현장 밀착식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역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함평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 | | |
|------|--|
| 농촌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97번지 |
| 농촌자원 | (H/W) 체류형 주택(단독분리형 9동),
체류형 주택(공동생활형 12실),
귀농인의 집, 쉼표하우스, 영농교육관,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공동체 실습농장,
버섯 재배사 등
(S/W) 멘토-멘티 프로그램,
관내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의 행복농촌 성공비법



▲ 영농교육관 전경

도시민의 전원생활 및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한편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에도 폐건물, 빈집 등 위해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방안으로 폐교 후 방치되어 있던 학다리중앙초등학교 등 유휴시설과 빈집을 활용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함평군은 전라남도 권역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2020년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2021년부터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농촌 활력 창출의 거점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1년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2022년까지 센터 입소자 중 함평군으로의 정착율은 73%로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함평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과 연계한 ‘귀농인의 집’, ‘섬표하우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201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3년 기준 빈집 7개소를 리모델링하였고 7명의 입주자 전원이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섬표하우스는 2020년부터 추진하여 2023년 기준 빈집 25개소를 정비하였고 43명의 입주자 중 36명이 정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2022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분야 우수 지자체에 함평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 체류형 주택(공동생활형)



▲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 신규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특별교육

현장밀착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멘토-멘티 매칭 및 관내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교육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기초 농업 이론, 공동체 농장 및 선도농장 등 전문교육, 농촌 문화생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멘토-멘티 매칭사업을 통한 영농기술과 인적교류 기회, 지역정보 제공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으로 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함평군의 귀농귀촌 캐릭터 '오소(OSO)'를 개발해 귀농귀촌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실습교육



▲ 평생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

생태·문화관광의 일번지 함평군 인구유입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물꼬를 트다!

행복농촌 NEWS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수별 피드백 시스템 도입 귀농귀촌 홍보 캐릭터 '오소(OSO)' 론칭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의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열리는 함평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인

지도를 자랑하는 축제 현장에 작은 정원을 추가 조성하여 귀농·귀촌 방향과 농업정책 등을 홍보하고 있다.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과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현

장을 체험할 수 있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함평체험 팸투어' 등도 접수하고 있다. 귀농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일정 기간 농촌을 경험하며 농업 창업 과정 교육 및 실습을 받을 수 있는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도 연결해 주고 있다.



▲ 관내 선도농가 벤치마킹

“
사람과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마을
”



▲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동식사



▲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



▲ 화합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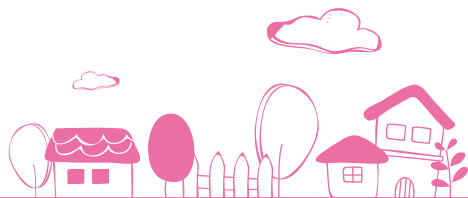
지역민과의 융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친밀감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사)함평군 귀농어귀촌협의회가 주관하는 귀농·귀촌인 화합 한마음 대회에서는 귀농·귀촌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화합의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건강교실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포부로 더불어 함께 사는 농촌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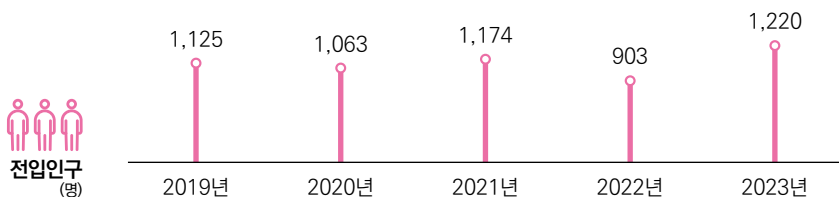
귀농귀촌 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

함평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담 행정조직과 (사)함평군 귀농어귀촌협의회 간의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함평군-지역민-귀농·귀촌인 간 분기별 합동워크숍 및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며 함평군 귀농·귀촌 활성화 전문 멘토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평군은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정(2011년)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농업 및 농촌 창업 분야별 전문가 상담대이를 운영하여 관내 빈집 및 토지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귀농·귀촌인 전입현황



입주현황 및 정착률

	2021년	2022년	2023년
입주현황	10세대 15명	8세대 11명	20세대 30명
관내정착	11명	6세대 8명	10세대 10명
정착률	73.3%	72.7%	33.3%

연계사업 추진 실적

2019 ~ 2020

권역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모사업

사업비 3,800백만원
주관기관 전라남도
- 교육, 영농, 숙박시설 설치

2017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사업비 40백만원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빈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 등

2020 ~

섬표빈집 재생사업

사업비 100백만원
주관기관 전라남도
-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2022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사업비 375백만원
주관기관 전라남도
- 농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등

2022 ~ 2025

전남농산어촌유학사업

사업비 2,927백만원
주관기관 전라남도
- 농산어촌유학 참여 세대에
맞는 주거 공간 제공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사례집

03 우수활동가

농촌사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합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우수활동가를 소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강성애	102
	전라남도 영암군 김창오	106
	전라북도 진안군 심효진	110
	충청남도 청양군 문미정	114
	전라북도 부안군 박후진	118
	경상북도 상주시 김정하	122



Before

콘텐츠 기획

스토리텔링

편집 기획

인터뷰 취재

인제군으로 귀촌...

농촌체험휴양마을 하추리산촌마을 사무장('17년~)

마을기업 하추리영농조합법인 사무국장

하추리작은도서관 관장 대행

로컬 스토리텔링 협동조합 이야기점빵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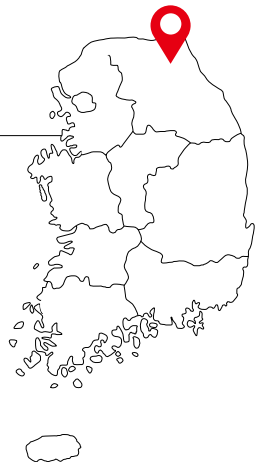
인제군 로컬투어사업단 전문강사

강원 인제군 하추리산촌마을 강성애 사무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하추리산촌마을의 강성애 활동가는
2017년 귀촌하여 현재까지 마을의 사무장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 경력을 살려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으로 다양한 사업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에서 수상을 이끌어내며
주민들이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림책을 발간하여 마을을 홍보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농촌여행 상품을 기획·운영하는 등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성애 사무장의 활동지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로 187 하추리산촌마을
주요자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하추리 산촌학교, 카페 하추리, 작은도서관, 하추리 밥상, 도정공장, 도리깨 잡곡(마을 잡곡 특화상품 개발), 그림책 산골마을 하추리, 산촌여행 관광상품, 지역 스토리 발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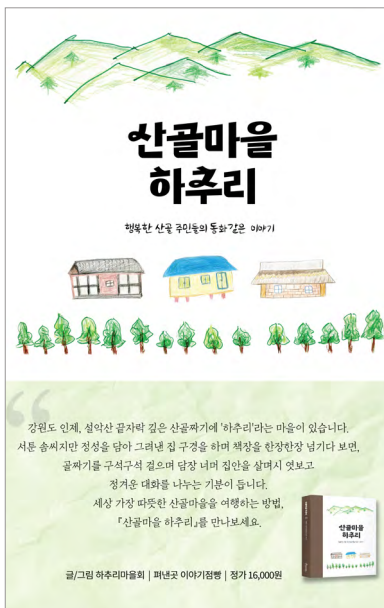


▲ 마을전경

“

산골마을을 움직이는 활동가,
발전의 주인공

”



▲ 그림책 산골마을 하추리 발간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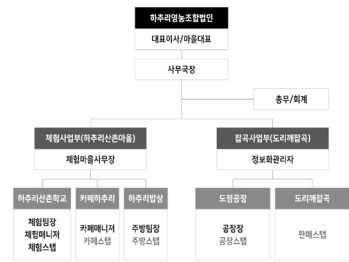
하추리산촌마을은 여러 사업에 도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북카페, 작은도서관을 구축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통하여 1995년 폐교한 하추분교를 2020년 하추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랜드마크로 다시 세웠습니다. 2022년에는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소득·체험 분야 금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강원도 엄지척 명품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모두사랑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홍보

설악산 아래에 위치하여 맑은 계곡이 가로지르는 하추리산촌마을은 다양한 산촌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휴식과 배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하추리산촌학교는 소규모 상시 체험과 더불어 주민들의 민박·펜션과 연계한 숙박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카페 하추리는 주민들이 인테리어에 참여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카페 하추리



▲ 하추리영농조합법인 조직도

마을 잡곡 특화상품 개발로는 도리깨 잡곡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여 질 좋은 잡곡을 수매하고 가공합니다. 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제품 개발도 꾸준히 하여 하추리 잡곡을 이용한 그래놀라 시리얼과 영양바를 만들었고 OEM 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2023년 내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도리깨 잡곡 수확 즈음하여서는 도리깨 축제가 열립니다. 옛 방식으로 도리깨와 방아를 이용하여 곡식을 도정하는 이 축제에서는 흥겨운 문화예술무대가 함께 합니다.

여러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하추리 산촌마을의 체험사업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등록하는 한편 국내 관광객 대상의 패키지 상품도 추가로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추리산촌마을의 성공사

례가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여러 컨설팅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마을과 함께 하는 여행 상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주도의 동호회 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스토리 개발의 일환으로는 하추리 선주민과 후주민의 마을 탐색을 담은 그림책 '산골마을 하추리'를 출간하였습니다. 하추리산촌마을의 다양한 활동들은 공식 홈페이지(injehachu.modoo.at),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통해 홍보 및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성애 활동가는 사무장으로서 모범이 되고자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 로컬 체험호스트 양성 과정 1기, 해외농업연수 등 다수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혼자하는산촌여행(체험프로그램)



우수활동가
은상

Before

영어교사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 4기 수료

1998년 모정마을로 귀향...

중·고 연계형 늦봄학교 교사/교감/교장('06~'19년)

영암신문 편집위원('08년~)

모정마을 이장(2년 역임)

모정행복마을 추진위원장('10년~)

영암문화원 영암학 연구원('18년~)

모정마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대표('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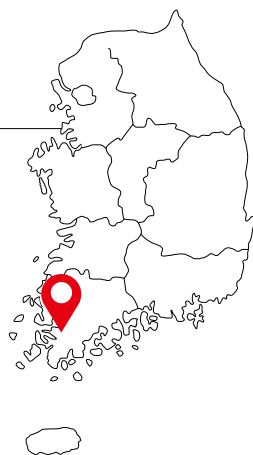
월인당 농촌유학센터 운영('21년~)

전남 영암군 모정마을 김창오 추진위원장

전라남도 영암군 모정마을 김창오 활동가는 1998년 가족과 귀향하여 농촌생활을 이어가던 중 2010년 마을가꾸기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전통문화와 자연생태 환경 등의 농촌다움이 보존되는 마을을 지향하며 예술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자립도와 행복지수를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일과 놀이가 융합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축제 등을 개발·추진하였습니다. 신명나는 마을을 주도하는 한편 지역교육공동체에도 힘쓰며 모정마을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추진위원장의 활동지

-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모정1길 41-1 모정마을
- 주요자원** 모정두레체험관, 연꽃탐방데크, 행복마을 숲, 모정풍물단, 모정차회 문화동아리, 사계절 마을 축제, 원풍망월 주민예술학교, 농촌유학센터, 작은도서관, 책 모정마을 이야기 등





▲ 마을전경

“

살기 좋은 마을로의
발전을 이끌며 노력하는 활동가

”



▲ 용출꼬기 복원 모습



▲ 콩쿠르 대회

마을 원형 보존을 위한 마을 디자인

김창오 활동가는 모정마을의 원형과 정취를 훼손시키는 난개발을 지양하고,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도로 마을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만 평 규모의 모정저수지 일원, 중심 주거공간인 고택과 벽화의 거리, 폐교 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 한옥마을 조성 사업 단지가 그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사업은 이러한 분할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마을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문화자립도 향상 및 지역 연대

민요교실·풍물놀이·차화활동·사계절 마을축제·원풍망월 주민예술학교·작은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하여 모정마을과 주민들의 문화자립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자긍심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체 역량으로 연꽃축제와 콩쿠르 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이는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를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은 선주민과 후주민 간의 친목과 화합을 이끌어냈으며 모정마을 주민들이 보여준 창의적인 공동체 정신은 이웃마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 한옥단지



▲ 2016년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대회모임 (모정두레체험관)

재능이 많은 모정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주민예술학교와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주민강사를 통하여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여 대도시 아이들이 농촌의 생활을 경험하고, 자립심과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오 활동가는 원로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마을의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귀향 후 20년 동안 모정마을의 역사·문화·인물·자연환경을 조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마을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고 주민들과 함께한 마을공동체 가꾸기 활동을 함께 모아서 '모정마을 이야기'라는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더불어 폐교(군서남초등학교) 부지에 체류형 농촌유학 주택을 지어 모범적인 농

촌유학 마을로 성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과정에 있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향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던 김창오 활동가는 귀향한 전력을 바탕으로 마을주인과 도시 향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소통을 이끌었습니다. 재경모정향우회·재광모정향우회와 수시로 만나 마을 소식을 전하고, 2010년 전남도 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동참할 명분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향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함께 잔치를 벌이고, 향우들이 한옥단지 내에 매입원가로 집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도시 향우였던 세 가족과 4인이 귀향하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다른 향우들 또한 고향에서의 인생이모작을 꿈꾸며 귀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2018년 전라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Before

일식조리사

진안군으로 귀촌...

씨없는 곶감 농촌체험휴양마을(학동마을) 사무장('14년~)

마을간사·사무장 협의회 회장 역임('19년)

전북 진안군 학동마을 심효진 사무장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학동마을의 심효진 활동가는 귀촌 후 마을 일손 돕기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마을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행정의 상호 협력을 이끌며

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시설 보수에서부터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마을 경제 살리기 등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효진 사무장의 활동지

-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학동길 54-14 학동마을
- 주요자원** 다목적 체험관, '학동 부녀회 맛' 식당, 야외 물놀이장, 힐링숲, 씨없는 곳감,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사계절 마을나들이, 생태덧밭정원, 산촌마당캠프 등





▲ 산촌마당캠프(도농교류)

“

활동가의 열정이
마을의 에너지로 변저갑니다

”



▲ 생태텃밭정원 탐방



▲ 사계절 마을나들이

자기개발을 통한 마을발전예의 기여

개인의 성장과 마을의 성장이 비례한다고 믿는 심효진 활동가는 마을 성장의 동력으로 자기개발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학동마을의 여행 및 체험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을 해설사 일과 정리수납 등에 도움을 주는 자격증들을 취득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동 부녀회 맛' 식당 영업 초기에 일식조리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추가 취득하여 식당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견인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선도

심효진 활동가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마을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과 학동부녀회를 설득하여 마을텃밭을 조성하고, 사계절 체험의 밑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운영관리 총괄), 사무장(숙박 운영관리,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홍보), 부녀회(숙박 시설물 관리, 체험 보조 진행), 노인회(숙박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 체험 진행), 청년회(숙박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체험 및 홍보 진행)로 역할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주민 참여도 확대되었습니다.



▲ 얼음썰매장 운영



▲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학동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운장산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있어 일찍이 200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통하여 9개의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후 마을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2018년부터는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동마을은 오랜 시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잘 잡혀 있는 마을입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이루고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2021년까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으로는 다목적 체험관 증축과 힐링숲 조성으로 체험시설을 갖

추게 되었습니다. 활동작물의 한 해 살이 농사 체험교육으로 학생과 마을주민 간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사계절 마을나들이'는 4개 학교가 참여하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겨울에 진행되는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겨울축제'는 농한기 마을주민들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얼음 썰매장과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10일 간의 운영기간 동안 약 900명이 방문한 이 축제로 인해 마을주민의 소일거리와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학동마을은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있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 손바느질 교실



▲ 소박한 마을축제



Before

청양군보건의료원 근무

남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19~'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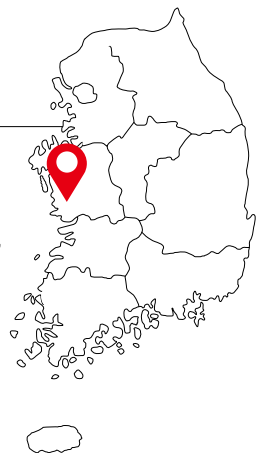
남양면 주민자치회 사무장('22년~)

충남 청양군 남양면 문미정 사무장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의 문미정 활동가는 귀향 후 2019년도부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참여하며 남양면 행복나눔터의 사무장을 맡았습니다. 금빛행복을 품은 光나는 남양면을 목표로 지역의 여가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생활서비스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면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마을의 주요 시설물 관리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들까지 행복한 남양면을 위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미정 사무장의 활동지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주요자원	남양행복나눔터, 시니어복지회관리모델링, 금빛로 개설 안전나눔길, 할매할배학교가자, 빛나는 문화교실, 광나게 걷기행사, 창익블럭 동아리, 코딱지 창익교실, 모모의 코딱지 마을학교 등





▲ 남양면 행복나눔터 전경

“
활동가의 손길로
빛나는 공동체

”



▲ 창의블록 동아리



▲ 남양면 행복나눔터 운영방안에 대한 워크숍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처음부터 함께

시설물 운영관리에 고민이 있던 문미정 활동가는 이용주 체인 주민들과 운영관리 책임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남양면 행복나눔터 준공 당시, 이용주체인 주민들의 취향과 의사가 아주 작은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징크 및 외벽 벽돌 색 등의 세세한 자재 선정과 공사 진행상황 등을 모두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선도

면 단위의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풍족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문미정 활동가의 주도로 남양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작한 창의블록 동아리는 남양면의 젊은 학부모 8명이 모여 조직하였으며 블록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의 소근육 및 창의력 발달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동체 소액 동아리 사업 삼삼오오를 통하여 코딱지 창의교실을 만들었으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공유하며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체 놀이 학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남양면 체육교실



▲ 모모의 코딱지 마을학교

2021년에는 농촌지역 아이들의 놀이문화에 관심을 갖고,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공동 부모모임 '모모'를 설립하였습니다. '모모의 코딱지 마을학교'를 통하여 놀이와 운동을 섞은 미니 체육대회와 글라스 데코·보석 십자수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면내 방앗간과 연계하여 썩개떡을 만들고, 면내 농장과 연계하여 딸기·블루베리 수확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하는 코바늘 수업과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코딱지 마켓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남양면 기관 및 업체 탐방과 마을 내 100세 이상의 어르신 만나보기, 장인 찾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구봉 행복문화 축제와 명랑운동회, 먹거리부스 등의 마을축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남양면 체육교실,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열었습니다. '모모의 코딱지 마을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던 아이들이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학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중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남양면은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체 동아리의 지속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5개의 동아리 프로그램과 주1회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체육교실·캠핑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귀촌가정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남양면이 되고자 합니다.



▲ 점핑 동아리



Before

의류디자이너

부안군으로 귀촌...

우덕새마을회 사무장('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지역문화기획자('23년~)

전북 부안군 우덕마을 박후진 사무장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우덕마을의 박후진 활동가는
3년 전 귀촌하여 마을의 젊은 일꾼을 자처하였습니다.
박후진 활동가는 마을 한가운데에 흥흥하게 방치되어 있는 옛 경로당을 보고,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일체감을 주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단장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학과 기록을 좋아했던 활동가의 설득과 주도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역사가 담긴 여러자료들을 모았으며 이러한 아카이빙은
멈춰있던 공간을 재생할 뿐 아니라 주민의 삶에도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박후진 사무장의 활동지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우덕길 19 우덕마을

주요자원 우덕기록문화관, 힐링프로그램, 문화·복지 지원사업, 농촌교육 등





▲ 우덕기록박물관(외부)

“
다양한 색깔,
서로 다른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주인공

”



▲ 우덕기록박물관(내부)



▲ 마을주인의 기록 작업 모습

주민들의 정체성 확보 및 공동체성 함양

유희시설인 옛 경로당을 활용한 우덕기록박물관은 마을의 추억을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 명소입니다. 우덕기록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박후진 활동가의 주도로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던 마을의 역사를 발굴하고 취합하였습니다. 지역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근현대 역사가 담긴 민간기록물이었으며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재는 우덕마을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농촌마을의 선두주자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건 작은 움직임의 힘이라고 믿는 우덕마을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은퇴자들을 위하여 생애 전환마을을 구축하며 선주민과 후주민이 상생하는 돌봄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마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 마을 활성화 관련 방송 출연

우덕마을은 박후진 활동가의 주도로 주민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환경개선과 농촌교육,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만들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간의 재생이 삶의 재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민화합이 이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오래된 물건과 사진 등의 기록을 보존 및 전시하는 한편 현재의 우덕마을에 대한 것도 성실히 기록하고자 노력합니다.

다.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으로 마을과 주민 사진촬영을 진행하였고, 이어 힐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가를 초빙하여 어린이로부터 노인들까지 함께하는 마을풍경 그리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밴드를 개설하여 주민은 물론 출향민들과 마을의 이모저모를 나누고 있습니다. 밴드는 기록관의 다양한 활동이 공유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덕마을은 돌봄과 치유의 공간을 계속 확보하여 마을 어르신들이 요양원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일하며 살아온 주민들과 계속 부대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던 우덕마을은 주민들의 노력과 신뢰 속에 놀라움과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마을 활성화 사례 교육



마을사랑봉사단 단원('15년~)
예장귀농귀촌상담소 상주낙동지소 소장('16년~)
낙동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위원('22년~)
상주시 마을만들기 협의회 총무('23년~)
신상1리 6반 반장('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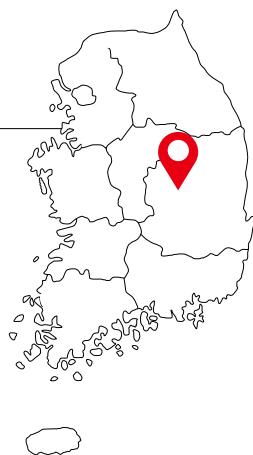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김정하 활동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 신상1리의 김정하 활동가는 10년 넘게 이장, 봉사단장 등 지역리더들을 지원하며 마을 활성화와 갈등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마을·세대 간의 연결을 지향하는 이음센터를 제안하고, 지역리더 지원, 마을경관 조성, 귀농귀촌인 유치,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며 낙동면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소통과 연결이란 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하 활동가의 활동지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상1리, 2리
주요자원	꽃피는 낙동면 운동, 해바라기밭, 얼음 썰매장, 귀농인의집(5채), 마을공작소, 마을 음악회, 행복학습센터, 농촌작은문화교실 등





▲ 선주민과 후주민이 함께 가꾼 해바라기밭

“

헌신하는 활동가와
함께하는 마을의 성장

”



▲ 신상리 마을음악회



▲ 상주시 프리마켓 생활소품 체험부스

마을 경관조성으로 명소 만들기

신상리는 1,400평 부지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마을경관을 조성하는 꽃피는 낙동면 운동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 및 귀농귀촌인이 함께 해바라기를 심고 추수하며 꽃이 피지 않는 겨울철에는 얼음 썰매장으로 활용합니다. 한편 여름철 농작물 빗 피해로 촉발된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상주시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으로 태양광 등 2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밤에도 마을을 산책할 수 있는 밤이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 개발 및 활성화 선도

마을공원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음악회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낙동면 및 신상리 주민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제작하고 4,000부를 낙동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가를 활용하여 마을공작소를 만들고 이곳에서 열리는 목공교실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벤치를 제작하고 각자의 기를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행복학습센터 공개수업



▲ 농촌작은문화교실

2022년 낙동면과 마을사랑봉사단이 행복학습센터 업무위탁 협약식을 개최하고 낙동면민회관과 복지회관에 행복학습센터를 유치하여 평생교육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10여 개의 강좌를 진행하며 지역 유희시설 활용과 주민참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유치하여 신상마을 전시회를 여는 등 마을 내 아이와 노인이 함께 어울리며 세대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리는 귀농귀촌인의 마을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소한 귀농귀촌상담소와 상주시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의 집 5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였고 그 결과 신상1리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선주민과 후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희망재

단에서 하는 농촌작은문화교실에 선정되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천연염색·노래·목공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곤포 사일리지를 활용하여 상주시 농촌마을 투어 프로그램 '숨은 곤포를 찾아라'를 추진하였고 마을경관에 특색을 주어 명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포럼을 거쳐 주민이 원하는 마을만들기를 진행하였던 김정하 활동가는 현재 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플리마켓 모두장터에 참여하고 각종 지역축제를 진행하며 2023년 창립된 마을만들기 협의회에서 총무로 활동합니다. 또한 상주시 농촌마을을 소개하는 '행복한 상주시, 마을만들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숨은 곤포를 찾아라(상주시 농촌마을 투어 프로그램)

04 우수공무원

농촌사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합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우수공무원을 소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용지현	128
	충청남도 아산시 오민환	132
	경상남도 거창군 장병문	136



강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원('15~'19년)
홍천군청 마을공동체팀 마을사업 전담 주무관('19년~)

강원 홍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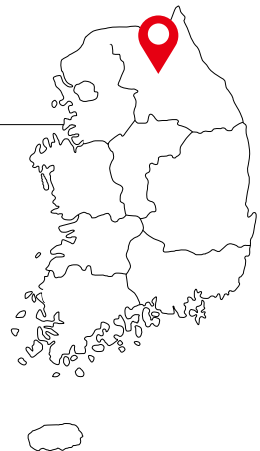
용지현 주무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농정과 용지현 주무관은
2015년도부터 광역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하며
40여개 마을 대상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경력을 바탕으로 2019년 홍천군청 마을사업 전담 공무원 임용되어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지현 주무관의 활동지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농정과 마을공동체팀
주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농촌현장포럼 추진,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등





▲ 추진위원회-군-전문가 회의(매월)

“
활동가의 리더십으로 마을이
변화의 중심이 됩니다

”

주민간의 소통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면단위 행사 시에는 홍보부스를 따로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마을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회의를 통하여 추진위원회, 담당기관, 전문가들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 자체 농촌현장포럼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직접 마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연계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합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역량강화 증대

홍천군 자체 농촌현장포럼 운영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19개소 완료되었으며 이 중 9개소는 연계사업이 선정되어 단계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2개소 지정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홍천군 농촌매거진 발간을 통해 마을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여행플래너/작가 양성과정, 마을대학 등으로 지역 주민역량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 농촌현장포럼



▲ 완료지구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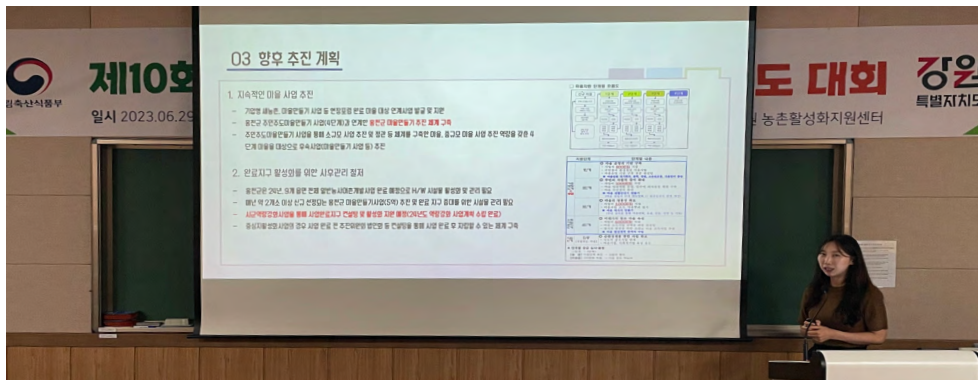


▲ 완료지구 역량교육

용지현 주무관은 지역 공동체의 갈등해결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사업 및 공사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시설물에 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 전체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시행하여 설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용역사 등과 함께 공사 착공 전에 관련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안내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세부설계 시 추가하는 등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지구의 자립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방치되는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흥천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수선비, 관리유지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의거하여 군 직원 및 읍면 또는 추진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법인화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료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컨설팅 및 운영진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므로,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기획하고 경영 컨설팅, 운영진 회계교육, 운영부진지구 상품개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홍보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 주민들의 활력, 공동체 활성화 등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도 예선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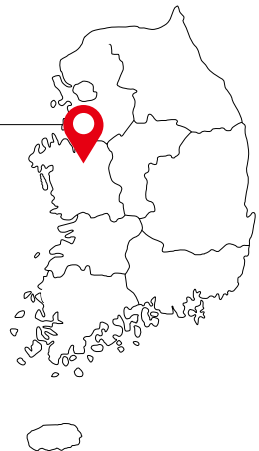
아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활력팀장
마을만들기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업무('20년~)

충남 아산시 오민환 농촌활력팀장

충청남도 아산시청 농정과 오민환 팀장은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 및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재생 및 환경개선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 아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하며
아산시 농촌마을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민환 팀장의 활동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농정과 농촌활력팀
주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학교 및 농촌현장포럼 추진,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농촌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등





▲ 농촌현장포럼

“
함께하는 활동가,
함께하는 발전.

”



▲ 지역주민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농촌활력 제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농촌지역의 인구 유지와 지역별 특화발전입니다. 최근 아산시는 2020년 189,352명이던 농촌지역 인구가 2021년 199,131명, 2022년 210,05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 송악면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은 2021년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 사례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에는 아산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 공간 해유사업이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만큼 농촌지역발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촌협약 선정으로 아산시 균형발전 기틀 마련

아산시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아산시 서남부 생활권 지역발전의 균형과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도비 262억원 포함 총 사업비 403억원을 투입해 엄치읍·송악면·선장면·도고면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시군역량을 강화하며 선장면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농촌협약식



▲ 주민회의

아산시는 맥킨지 리포트 선정 2025 세계 7대 부자도시이자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이며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먼저 찾아오는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아산시의 서남부 생활권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민환 팀장은 특색있는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활성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관련 공모사업의 준비를 위해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계기관 업무 협의 시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송악면의 선주민 및 후주민,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는 송악면 지역

공동체 발전포럼 개최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체계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완료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 '행정재산 관리운영 기준'(2022년)을 마련하였으며 농촌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2019년), '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년)를 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부터 중간지원조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촌협약위원회 정기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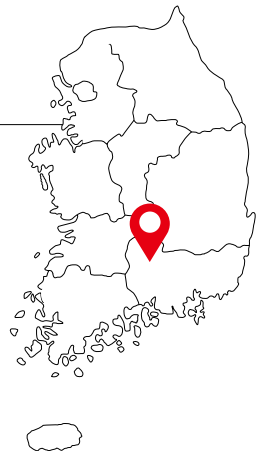
거창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담당 주무관('14년~)

경남 거창군 장병문 주무관

경상남도 거창군 농촌지역개발 전담부서인 행복농촌과가 신설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창군 마을만들기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병문 주무관은 거창군의 주민주도 행복농촌 만들기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현장중심의 마을만들기 역량을 키워 마을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식품부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 2회를 포함한 금상 3회, 은상 2회 등 총 8회 입상 성적을 거두었고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장병문 주무관의 활동지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
주요사업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등





▲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퍼포먼스(마을만들기 분야 대통령상)

“

활동가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의 성공 스토리

”



▲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빙기실마을 대통령상)



▲ 농촌협약 공모 주민토론회

주민주도 행복농촌 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거창군 주민주도의 행복농촌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단계로는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마을대학을 139개소 운영하였으며 2단계로는 마을만들기의 경험 습득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소액사업 182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단계로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식품부 농촌현장포럼 37개소, 군 자체 농촌현장포럼 16개소(총 5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으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마을과 매칭하여 행복농촌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도출한 사업과제의 실현

주민이 함께 도출한 사업과제는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은 전국 최대규모인 470억원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확보해 거창군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거창군의 숙원사업인 폐축사단지 130여동을 정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5개소 추진으로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현마을 농촌운동



▲ 마을활동가 육성대학 운영

장병문 주무관은 전문가·민간·행정이 함께 만드는 거창군 마을만들기 마스터플랜을 꿈꾸며 10년간 거창군 행복농촌과에 근속하였습니다. 주민참여와 한국농어촌공사·농촌활성화지원센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제3회 마을만들기 분야 금상, 제6회 소득·체험 분야 금상, 제9회 경관·환경 분야 금상, 제4회 문화·복지 분야 은상 등 다수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거창군 행복농촌 만들기 우수성을 확산시키고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신활력플러스사업·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1,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행복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두 개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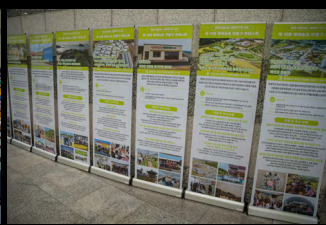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경상남도 최초로 설립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2021년 5월 설립된 거창군 신활력플러스추진단사무국입니다. 여기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발굴 및 육성된 현장활동가를 더한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며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문 주무관은 행복이라는 쉽고도 어려운 단어를 가슴에 품고 거창군을 행복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대학 운영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행사 사진





2023년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TEL. 044) 201-1545~6
발행일 2023년 12월
편 집 디자인스토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https://www.raise.go.kr/contest>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023년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비매품 / 무료



9 791198 670717

0 5 0 6 0

ISBN 979-11-986707-1-7 (PDF)